

#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아침 운동이든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뭐든지 하는 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신협 모델  
조보아





# 제64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추천 공고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및 단체의 업적을 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문화상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64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분 야

- ① **공로상** : 20년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② **작품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을 고려한다.
- ③ **출판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문(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 ④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 ⑤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
- ⑥ **회원표창** : 지회·지부에서 추천하며 한 해 동안 지회·지부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지대한자 (지회·지부장, 임원 추천서 필수)

## 마 감 일

2026년 1월 16일(금) 협회 도착분에 한함

## 진 행 절 차

- 접수된 추천서에 대하여 한국사진문화상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
- 선정된 수상자는 2026 PASK AWARDS에서 시상 예정



# Contents

December 2025 Vol.545

## Cover Story



### 임성동(장흥지부)\_겨울의 속삭임

찬 바람이 모든 색을 지우고,  
세상은 고요한 흑백의 공간으로 변한다.  
그 길 위를 걸을 때마다  
발자국 소리마저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겨울은 멈춤의 계절이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의 숨결이 있다.

얼어붙은 강 위의 바람, 서리꽃 핀 나무의 가지,  
그 모든 것이 잠시 머무른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겨울의 시간을 따라 걷는 여정이다.  
멈춰 있는 듯 흐르고, 차가운 듯  
따뜻한 계절의 이면을 흑백의 시선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길을 함께 걸으며 겨울의 고요 속에 숨어 있는  
서정을 느껴보길 바란다.



24



32



36

03

## Headnote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연대와 창조의 시간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

24

## 전시광고

[정인호 개인전] 멈춘 시간의 미학  
빛이 남긴 기록\_새로운 생명 - 정인호(여수)

28

## 전시광고

[송인호 개인전 3rd Solo Exhibition] 홀로 지킨 그 자리, 바람이 머문다  
뿌리깊은 고독 Deeply Rooted Solitude - 송인호(대전)

32

## 전시광고

[김민주 개인전 & 구미아트페어 초대전] 바람처럼 물처럼 시간 속으로...  
미묘한 흐름 Subtly Flow - 김민주(구미)

36

## 특집 |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38

특별전 |故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42

AI 이미지 콘테스트 &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50

서울 특별전 - 서울의 풍경

54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

64

특별전 '장가계'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70

사진학과 교류전

74

## 자상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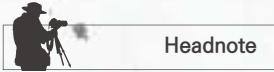
브로드웨이로, 첼시마켓으로  
뉴욕을 걷다 - 김승철(부천)

## 사진강좌

78

## Review & Preview

그만의 빛으로 터치한 산과 물  
민병헌 사진전\_산수경 - 김재훈



Headnote

##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연대와 창조의 시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묵묵히 한국 사진예술을 지켜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협회가 이뤄낸 성과들은 모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서 비롯된 소중한 결실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품은 진실과 감동이 시대를 밝히는 언어가 되듯, 우리 협회가 이어온 발걸음 또한 한국 사진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협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대한민국사진축전,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청소년사진제, AI이미지콘테스트, 국제사진예술 교류사업 등 굵직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은 한국 사진예술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무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 축전에서는 한국 현대사진사의 큰 어른이신 故 이경모 작가 특별전을 마련하여 그의 예술혼을 기리고, 그가 남긴 시각적 유산을 새롭게 조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와 중국예술사진학회의 교류전, 키르기스스탄·장가계·대학 간 교류전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열리며,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국제적 지평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한국 사진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속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지닌 위상을 더욱 공고히 쌓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2025년은 협회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변화와 준비의 해였습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화, 제도 정비, 사진교육 기반 강화, 그리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창작환경 구축 등 미래를 위한 밑그림들이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장학·교육사업 확대와 장학재단 설립 준비 또한 우리 협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참여가 우리 협회의 모든 행사를 빛나게 하고 있으며, 한국 사진예술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우리 협회가 함께 이루어 갈 더 큰 도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 차 열

# Contents

December 2025 Vol.545



##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mailto: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sk / PW : kpassk  
펴낸날 | 2025년 12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84 **Photo Travel**  
카메라 두고 떠난 여행 |  
이탈리아와 독일, 길 위의 노트 - 유병용(서울)
- 88 **Photo Essay 01**  
한민족의 구심점 독도  
그 심장의 울림을 담다 - 이수인(익산)
- 92 **Travel destination**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다  
예술의 역사와 미래 - 최승언
- 96 **Photo Theory**  
말없는 사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물 앞에 멈춰 선다는 것 - 여상현

### 협회소식

- 100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결과 및 협회소식, 분과위원회, 회원동정

### 업계소식

- 114 **Gallery**  
김민주 개인전 & 구미아트페어 초대전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sk / PW : kpassk



제 63회

##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시상전

접수마감 2026년 1월 16일(금) (도착분)

- 작품내용 8"x10"(자유작)  
출 품 수 1인 2점 이내  
참가자격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시상 전국회원작품시상전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  
②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 선정

- 접수기간 2026년 1월 16일(금) (도착분)  
출 품 료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증정) - 작품집은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파일접수 이메일 [koreapask@daum.net](mailto:koreapask@daum.net)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화문의 02-2655-313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특 전 수상자는 2026년 PASK AWARDS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기타사항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자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78301-01-290242 예금주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사진예술 대학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The PASK Photography Art College 5th Class  
Association Exhibition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시

2026. 1. 14 ~ 1. 20

Gallery Lamer 3F (6, 7 exhibition room)

Opening\_ 2026. 1. 14(wed) pm15:00

(20일은 오전만 관람가능)

전시주제\_ 팔림프세스트 Palimpsest

## 사진예술대학 제6기 모집

(2026년 3월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신청 자격요건

1.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업을 희망하는 자

###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2026년 3월 20일(금) ~ 7월 24일(금)

2학기 개강 2026년 8월 28일(금) ~ 12월 18일(금)

기획전시회 2027년 1월 중 (추진예정)

###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대면수업 월1회 이상 필수참여, 과제이수 40%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6년 3월 개강 이전까지

###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6기 강의장소 안내

#### 이론수업

1. 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2. 크리틱 및 실습수업 장소는 추후 공지

#### 실습수업

1. 강의별 추후 공지예정
2. 사진촬영 출사 (상황에 따라 조율)

###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사진예술 대학

사진예술대학 6기

The PASK Photography  
Art College 6th



· 제30대 우수찬 이사장 4,000만원 기탁 · 심재안 위원장 2,000만원 기탁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호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운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태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오만테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흥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장일미 평택지부장 20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150만원  
박헌재 자문위원 100만원  
반봉현 자문위원 100만원  
조병두 자문위원 100만원  
서성강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은효진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김남규 자문위원 50만원  
신성우 자문위원 50만원  
윤종근 자문위원 50만원  
이판수 자문위원 50만원  
윤상섭 자문위원 50만원  
김동민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완기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박용덕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달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윤식 자문위원 30만원  
신우식 자문위원 30만원  
안판중 자문위원 30만원  
양범석 자문위원 30만원  
오상석 자문위원 30만원  
임계환 자문위원 30만원  
홍성광 자문위원 30만원  
김경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삼경 자문위원 20만원  
김석원 자문위원 20만원

김은근 자문위원 20만원  
김종호 자문위원 20만원  
박국인 자문위원 20만원  
박춘순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균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조웅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 2025년 장학금 기탁

강돈영 이사 30만원  
강경희 자문위원 30만원  
박해섭 이사 50만원  
민웅기 이사 30만원  
산악사진분과위원회 50만원  
양성근 나주지부장 20만원  
하봉걸 이사 50만원  
이창훈 이사 30만원  
김종호 고문 20만원  
박인호 이사 30만원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50만원  
한웅상 이사 30만원  
전영복 자문위원 20만원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100만원  
서산지부 2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효숙 자문위원 30만원  
손석윤 이사 10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중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지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지부 20만원  
장흥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만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강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드론사진분과 10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회원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회원 100만원  
양경창 자문위원 1,00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100만원  
김시묵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혜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전태만 이사 100만원  
임성동 이사 100만원  
전태국 안동지부장 50만원  
최덕환 익산지부 회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김정희 안동지부 회원 2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우숙자 이사 20만원  
이경래 본부감사 10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20만원  
김영록 이사 30만원  
오명숙 이사 3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배경희 천안지부 회원 10만원  
윤보상 이사 100만원  
김명옥 이사 30만원  
김문호 이사 30만원  
조성근 자문위원 20만원  
박순정 대외협력부위원장 100만원  
오만테 이사 100만원  
오재용 광주지회 회원 500만원  
임혜숙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김홍찬 대전지회 회원 20만원  
황일영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신명현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윤지안 인천지회 회원 2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정연수 이사 100만원  
국향숙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10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백승의 장학위원회 감사 150만원  
박옥률 강릉지부장 2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70만원  
최연근 이사 200만원  
황길연 이사 100만원  
윤기옥 은평구지부 회원 500만원  
윤판문 광주지회장 5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회원 20만원  
박건태 이사 30만원  
이육진 다류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정재문 이사 50만원  
손홍현 광주지회 회원 30만원



##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사진예술의 미래를 밝히고, 젊은 인재들이 창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사진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이에 협회는 장학재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기금 모금에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미래 사진예술을 이끌어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2025년 12월 1일 기준

황치길 자문위원 30만원	이윤순 이사 100만원	김희섭 구리지부 회원 10만원	이승모 금산지부 부지부장 10만원
김경복 서울지회 회원 50만원	석도상 산청지부장 50만원	최태용 자문위원 30만원	김종철 금산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최경순 하남지부장 30만원	강신재 자문위원 10만원	정영섭 양평지부 회원 10만원	오원석 대전지회 감사 3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 100만원	이애영 중앙예총회장 100만원	선종백 부이사장 100만원	진광준 구미지부 부지부장 30만원
장준복 스포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채석근 특수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송구진 전주지부 감사 50만원	박영숙 대구지회 회원 30만원
이기복 수원지부 회원 20만원	조선일 인천지회장 20만원	김호경 동작구지부 회원 10만원	김정인 송파구지부 회원 100만원
염미영 수원지부 회원 10만원	신명현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10만원	이윤순 충주지부 회원 50만원	백승의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100만원
최현동 광주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어재선 평창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호규 대구지회 지회장 30만원	오문자 성남지부 회원 200만원
이재규 증평지부장 5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오환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오성조 자문위원 50만원
누드사진분과위원회 30만원	김대중 청주지부장 20만원	박현숙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이종석 이사 50만원	최영근 당진지부장 30만원	배영희 대구지회 사무국장 10만원	김광재 촬영지도위원 사무국장 10만원
한현정 홍성지부 회원 20만원	의왕지부 100만원	김문영 대구지회 사무처장 10만원	박석관 이사 50만원
조길호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손영자 동작구지부 회원 30만원	김춘도 이사 30만원	정건영 자문위원 100만원
장현종 여수지부장 30만원	구미숙 양천구지부 회원 100만원	이희수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500만원	박만석 이사 100만원
신용식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장영길 자문위원 100만원	김철수 이사 3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100만원
위싱턴지부 60만원	서산지부 일동 310만원	고미선 여주지부 회원 10만원	신영식 광양지부 지부장 100만원
이종면 영등포구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이상영 이사 100만원	
정금규 강동구지부 회원 100만원	정강주 춘천지부장 10만원	박용득 구미지부 회원 100만원	

현재 잔액 353,507,551원



# Haida

렌즈의 AF 장치에 영향을 최소화한 적절한 자력

##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ND 8, 16, 32, 64, 1000, CPL, 그라데이션 등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 선택 가능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  
CAMERA & LENS CLEANING KIT

블로어, 극세사, 청소용 붓, 펜슬, 센서  
청소도구 등 필요한 모든 청소도구를  
담은 카메라와 렌즈 클리닝 키트



**마그네틱 컨버전 어댑터링**  
MAGNETIC CONVERSION ADAPTER RING

일반 원형 필터를 마그네틱 필터로 변환  
하는 어댑터링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터를 마그네틱으로  
활용해 보세요



**결로방지 렌즈히터**  
LENS HEATER

렌즈와 카메라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추운 곳에서도 결로를 막고  
카메라가 얼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



**렌즈용 극세사 매직 랩**  
CAMERA & LENS CLEANING KIT

렌즈, 카메라를 보호하는 극세사 랩  
벨크로처럼 접착 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SUNWAYFOTO®

포토클램이 수입하는 믿을 수 있는 촬영장비



SUNWAYFOTO  
GH-RPO+

## 파노라마 · 랜드스케이프 · 정물사진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기어헤드

썬웨이 포토의 GH-PRO+는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3-WAY 기어헤드입니다.  
플레이트 클램프 부분에 파노라마 베이스가 추가되어 여러장의 사진을 합치는  
촬영에서 수평을 맞추기에 용이합니다. 고급 황동 소재를 사용해 기어의 작동이  
부드럽고 정교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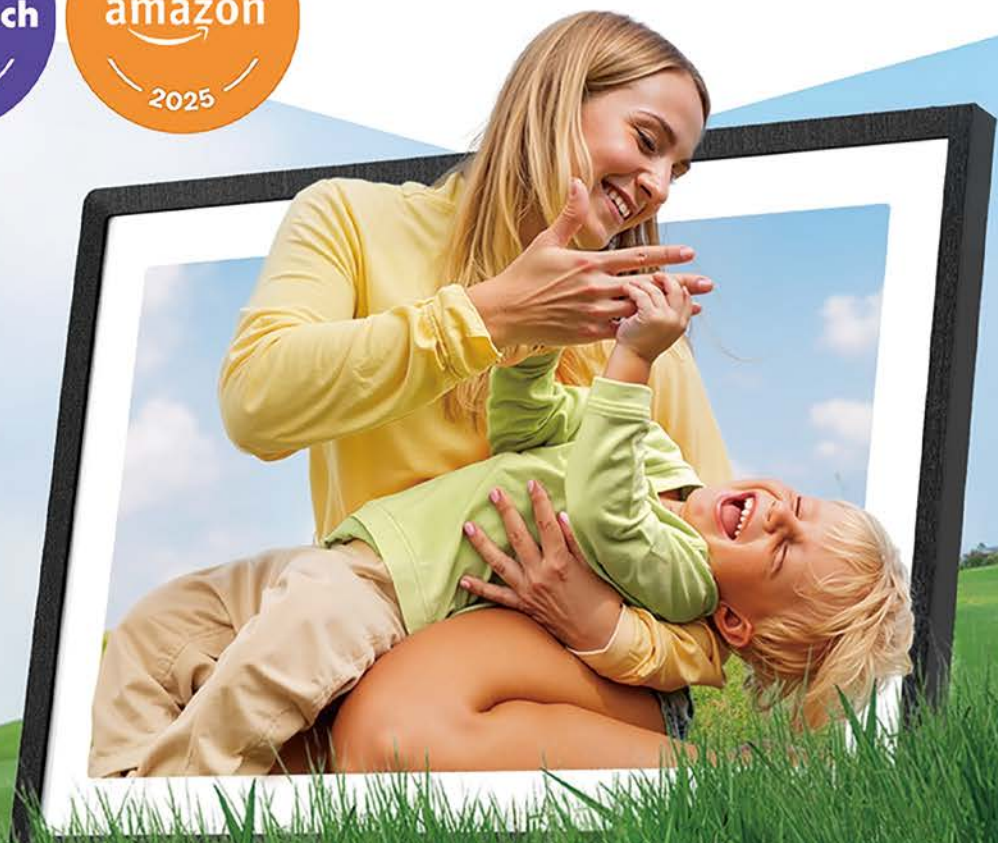


pexar | by Lexar

# pexar

## 펙사, 디지털 액자의 새로운 기준

“당신의 추억을 작품처럼”



### 2K

타사도 따라올 수 없는 선명도

### 사진 & 영상

간편한 공유

### 32GB

내부 저장공간

### 구매하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시스템 적용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BENRO**

# CYAN BIRD [MAX]

사진용 여행용 삼각대 **벤로 사이언버드 맥스**

휴대성과 안정적인 20kg 페이로드

## 20KG 페이로드

36mm대형 볼 직경



### BALL + Low Profile

볼 + 역방향  
로우 프로파일

### CARBONE LEG

강도, 진동흡수  
카본재질 레그

### 47.3 FOLD

접었을 때 높이  
47.3cm

### 156 HIGH

최대높이  
156cm

### 20 PAYLOAD

페이로드  
20kg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래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사진: 탐험가\_@withkhyun (석현)/ 스위스, 마테호른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발유,발수  
오염방지 코팅



최상등급  
광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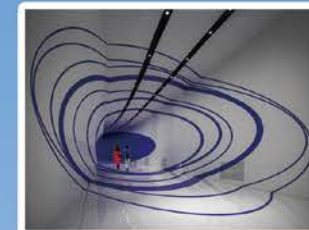
자외선,적외선  
완벽 차단



울트라 슬림  
필터 프레임

# 제42회 제천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6년 2월 13일 도착분



- **출품자격** 제한없음(대한민국 전 국민)
-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 **작품규격** 흑백 / 컬러사진 11x14인치 (입상및 입선자 3000pix이상 제출)
- **출품수량** 1인 4점 이내
-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작품뒷면에 화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제출)
- **접수마감** 2026년 2월 13일 도착분
- **접 수 처** 충북 제천시 내제로 75 커피아르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 **문 의 처**  
지 부 장 010-3454-0102  
사무국장 010-2667-2107
- **심 사 일** 2026년 2월 21일(토) 예정 (공개심사)
- **심사발표** 2026년 3월 2일
- **시 상 식** 추후공지
- **작품전시** 추후공지

- **시상내역**
  - ▷ **금상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 **은상1점** 제천시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 **은상1점** 제천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 **동상3점** 예충 제천지회장 상장 및 상금 200,000원
  -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장 상장
  -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장 상장 (총 출품작 20%이내-입상작 포함)

## ■기타사항

- 입상,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10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작품, 유사작, 기발표작으로 판명될 시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 불허함.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 입선 및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지정된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보낼 이메일 주소 : otterkang@naver.com
- 상금 원천징수액 세금 및 수수료 발생할 경우 공제후 지급.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분쟁, 표절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 대한민국 사진대전 사진축전

작품출력 및 액자제작  
-회원전, 사진작품전 전시기획 대행

##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매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가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한사전, 사진축전, 그룹전, 개인전, LED전시, 도록제작, 전시기획 대행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ArtPlus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Artluxe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한국사진 광고 중]



“마음을 담는 작품”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ArtPlus  
LINE UP CARD



ArtPlus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Plus PEBB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진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rtPlus FINEART 파인아트

은은한 색감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Plus KOREAN PAPER 한지

한국적인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LINE UP CARD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SUREVUE 슈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 아트룩스 유사상호, 출력필름 합성지, 중국산 필름 사용등  
불량제품 피해 주의바람.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 친환경 자연주의 닥나무 닥운용 설경한지



장섬유인 닥나무 운용을 그대로! 소프트한 설경한지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닥운용 설경한지

한지인화 두진만의 프로파일 적용 미세한 디테일 까지...



설경한지 입체액자



닥운용 설경한지 캔버스 원목입체액자



설경한지 캔버스



사진축전 바로가기



한지액자 바로가기

국내산 전주 설경한지만을 사용합니다.

[www.dujinart.com](http://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두진액자 바로가기



두진아트 바로가기

#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에 관한 모든것! 두진아트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사진전시는 두진아트에서 최신 트렌드 작품액자로 준비하세요.

D5띄움 액자 뒷면



D5띄움 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디아섹 뒷면



독일제무반사 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사이즈 (3R,4R,5R,6R,8R,11R)



액자보러가기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http://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http://m.dujin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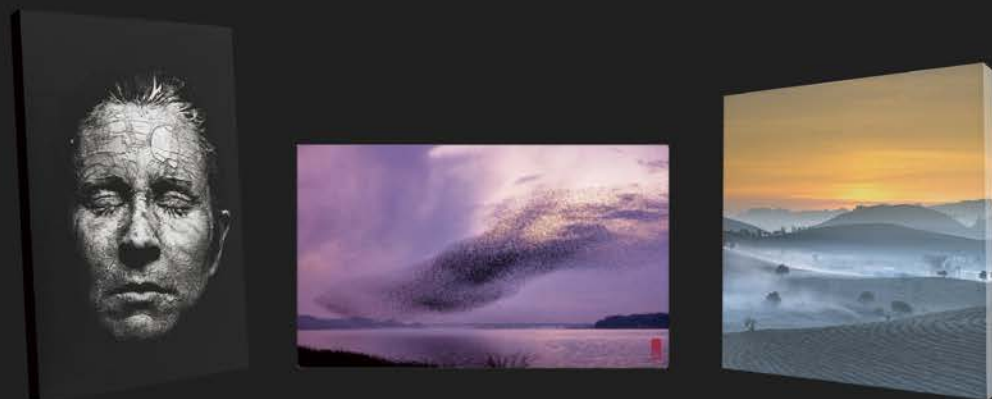
**NAVER** 두진아트





# 사진의 가치는 프레임에서 완성됩니다

수십 년간 사진과 함께한 아뜨레는,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액자만을 만듭니다



전화문의 1544-2188 (주중 09:00-18:00 | 점심 13:00-14:00)



## ARTTRE FRAME

Arc diasec 아크 디아섹  
고품격 프리미엄 아크릴액자



Premium acrylic 프리미엄 아크릴  
화이트엣지 아크릴액자



Gallery frame 갤러리랩  
신개념 랩핑액자



Canvas frame 캔버스랩  
은은한 색감과 패브릭의 질감이 매력적인 캔버스액자



Black wood frame 블랙우드  
고품격 프레임액자



Gallery wood frame 갤러리우드  
슬림하고 심플한 무늬목 몰딩으로 모던함 극대화







수목에 깃들었다

©You Su Chan

#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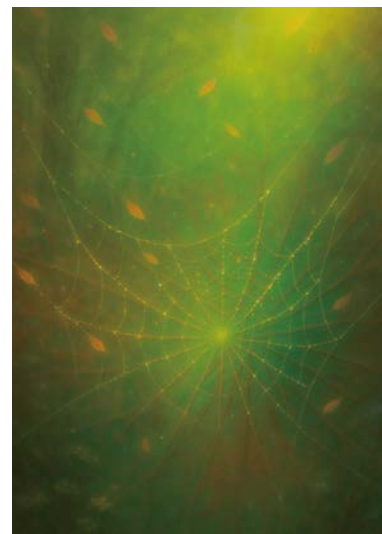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월간 한국사진 12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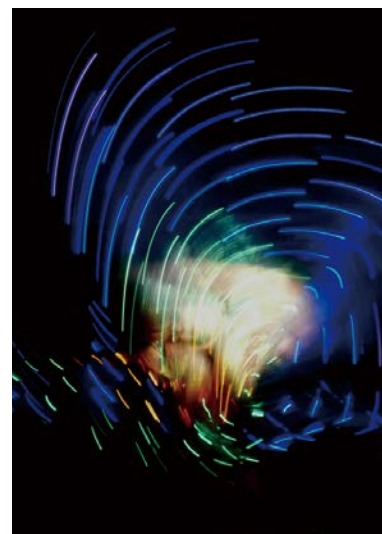
· 윤기창  
· 내려 놓을 때  
나무는 버려야 할 것을  
아는 순간 가장 아름답다.  
라는 어느 시인의 이야기.  
사람도 모든 것을 내려 놓을  
때가 아름답다  
니콘 D800,  
사용렌즈 24-70mm



· 장경애  
· 공존의 그물1  
빛은 서로 다른 생을  
엮어 하나의 그물로  
만든다. 고요한 질서  
속에 머무는 생의 떨림.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  
가는 방식이다.  
Canon EOS 5D Mark IV  
렌즈 24-105



· 장덕재  
· 일출  
이른 새벽 자욱한 안개 속  
국사봉 오르는 길에서 만난 일출  
산골을 누비는 새하얀 운해  
환상적인 대자연의 연출  
Canon, 조리개 5.6 셔터속도1/30  
iso100 사용렌즈 35-70mm(f2.8)



· 정지우  
· 빛의 예술 판타지  
빛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내는  
선을 창조하고 있다.



· 홍이선  
· 바람의 흔적-1





전시광고

[정인호 개인전]

멈춘 시간의 미학

# 빛이 남긴 기록 – 새로운 생명

정 인 호(여수)

전시일시 2026년 1월 28일(수) ~ 2월 3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1F 2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6, 홍익빌딩 TEL.02-730-5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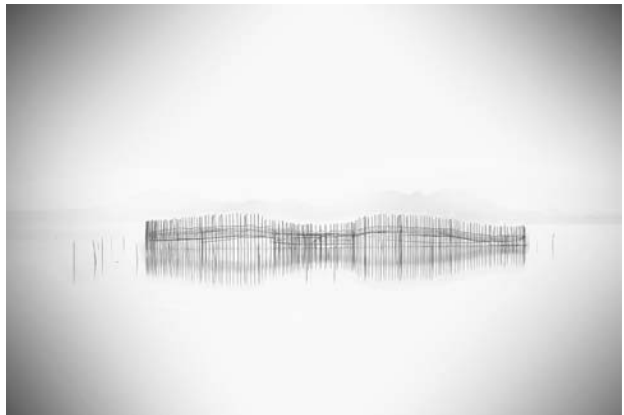
전시작가 정인호(010-3621-6272)







©정인호



©정인호

바다는 언제나 흐르고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멈춘 시간을 본다.

이 작업은 ‘장노출의 철학’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다시 탐구한 결과물이다.

AI는 나에게 있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번역하는 또 하나의 언어였다.

그 언어를 빌려, 나는 인간이 잊어버린 시간의 결을 다시 꺼내고자 했다.

바다에는 사라진 것들이 있다.

과거의 노동, 닳아버린 말뚝, 부식된 어망, 그리고 손길이 멈춘 구조물들.

그것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오히려 쓰임을 다한 그 모습 그대로가 ‘존재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에서 인간이 남긴 감정의 흔적을 읽었다. AI는 그 감정을 빛의 농도와 질감으로 다시 해석하며, 사라짐의 순간을 정지된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었다.

장노출이 시간의 흔적을 한 장의 사진 안에 응축하는 기술이라면, AI는 ‘시간이 사라진 자리’를 상상하는 도구다.

나는 이 둘의 경계에서 새로운 감각적 언어를 발견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바다는 고요하지만 결코 죽어 있지 않다.



©정인호



©정인호

그 안에는 여전히 미세한 진동과 기억의 잔향이 머문다.

이 작업은 단지 풍경을 찍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내면의 움직임’을 기록하려는 시도였다.

AI는 내가 그동안 카메라로 담을 수 없었던 ‘감정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번역해 주었다.

나는 화면 속에서 물결을 지우고, 파도를 멈추며, 시간의 소음을 걷어내었다.

그렇게 남은 것은 고요한 여백과, 그 여백 속에서 되살아나는 존재의 숨결이었다.

이 시리즈의 모든 장면은 결국 ‘기억의 파편’이다. 빛이 멈춘 순간에도 바다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낸 시간의 흔적이 흐르고 있다.

AI는 그 기억을 현실로 다시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고,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지닌 ‘기억의 본능’을 새롭게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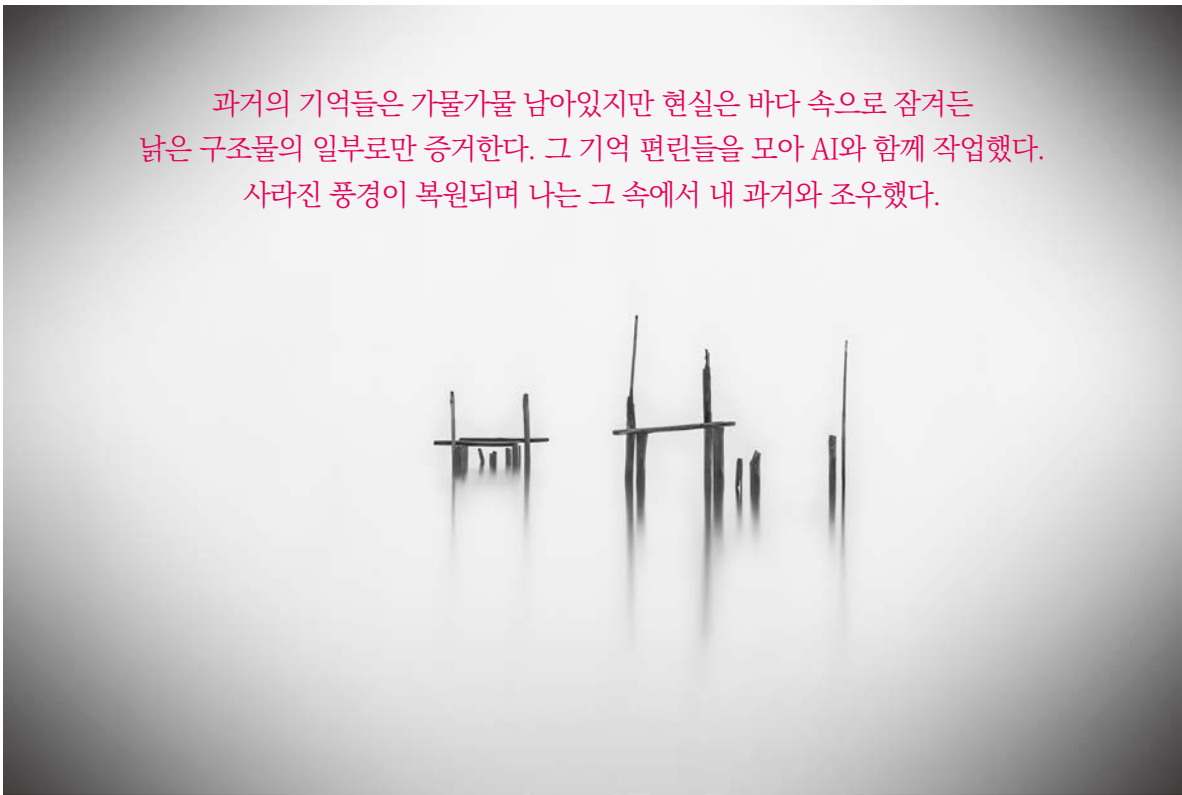
결국, 이 작업은 기술의 탐구가 아니라 ‘기억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다.

사라진 풍경은 AI의 화면 속에서 다시 살아났고,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기억의 바다’는 그렇게 다시 깨어났다.

멈춘 시간의 미학은, 사라짐의 고요 속에서 완성된다.

과거의 기억들은 가물가물 남아있지만 현실은 바다 속으로 잠겨든  
 남은 구조물의 일부로만 증거한다. 그 기억 편린들을 모아 AI와 함께 작업했다.  
 사라진 풍경이 복원되며 나는 그 속에서 내 과거와 조우했다.



©정인호



©정인호





전시광고

[송인호 개인전 3rd Solo Exhibition]

홀로 지킨 그 자리, 바람이 머문다

# 뿌리깊은 고독 Deeply Rooted Solitude

송인호(대전)

전시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 12월 21일(일)

전시장소 대전예술가의 집 제5,6전시실

개전식 2025년 12월 17일(수) 15:00

전시작가 송인호(010-8813-6666)



©송인호

“홀로선 나무는 내 자신의 초상이다”



©송인호



©송인호





©송인호

홀로 한 자리를 긴 세월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 떠난 자리에 독아청청하는 그 모습은 고고하다.



©송인호



©송인호

송인호 작가와 나는 25여 년 전부터 사진작품 활동을 함께해 온 인연이 있다. 그는 늘 에너지가 넘치며 자기 계발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기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음악 분야 또한 재능이 출중하고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라서 한마디로 다재다능하다,

하지만 그의 어깨너머에는 강인함 속에 내재된 외로움과 고독의 그림자가 함께 함을 엿 볼 수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때때로 “홀로선 나무들” 에 고정되어 있었다. 광활한 벌판, 거친 능선, 삭막한 평원에서 오직 혼자만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나무들의 모습이 그가 느끼는 근원적인 외로움의 초상이자 그의 사회적 관계를 벗어난 순수한 존재의 은유였다.

왜 홀로선 나무인가?  
홀로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무는 환경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주어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살아낸다. 그 자체가 오직 자신만의 무게와 침묵을 지켜 왔다는 굳건한 증거인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온전한 자기로 서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있고, 존재의 근원적 외로움에 대한 탐구가 작품에 녹아 있다.

“뿌리깊은 고독” 은 고독을 이상화 하거나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닐 것이다. 즉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직시하고 있다. 사진 속 피사체 주변의 드넓은 여백은 바로 이 외로움의 크기를 시각화한 장치로 보인다.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그의 내면속 심연을 들여다 보게 하는 강제적인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가 외부의 흔들림을 버텨내며 스스로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고독을 “회피해야 할 것”에서 “받아들이고 함께 동반해야 할 것” 으로 전환하는 작은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작가의 의지가 엿보이며, 고독을 넘어선 자유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전시를 관람하는 모든 이들이 잠시 멈춰 서서 사진속 나무의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뿌리깊은 고독” 은 개인적인 기록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객 모두의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 시대의 모든 고독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그 고독 속에서 발견하게 될 놀라운 힘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당신의 고독이, 곧 당신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글\_이호범(사진가, 대전지회)





©김민주\_바단지린 그림자



©김민주\_댄싱트리

[김민주 개인전 & 구미아트페어 초대전]

바람처럼 물처럼 시간 속으로...

## 미묘한 흐름 Subtly Flow

김민주(구미)

### 1차전시

전시일시 2025년 12월 4일(목) ~ 12월 8일(월)

전시장소 구미코 2층 특별전시장

주최·주관 구미아트페어 조직위원회

전시작가 김민주(구미) 010-3337-0764

### 2차전시

전시일시 2025년 12월 9일(화) ~ 2026년 2월 28일(토)

전시장소 아뜰리에21갤러리





©김민주\_툰45의바람

시간은 흐름을 창조한다.  
 바람은 사막 모래를 만나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고 물결은 달빛따라 춤추며 나를 깨운다.

©김민주\_와라리키여명



©김민주\_오로라



©김민주\_파타고니아호수여명



©김민주\_와나카더트리

나는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파도, 구름, 별, 꽃, 바람 등 끊임없이 변화하며 흐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묘한 움직임을 나의 포토그램(photo-gram)적 소재로 삼았다.

이 작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다림과 응시의 시간을 통해 자연의 흐름을 내면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이 남긴 흔적은 마치 시간의 파도처럼 사진 속에 스며들며 변화의 자취를 드러낸다.

이러한 풍경은 단지 외경(外景)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과 공명하며, 자연과 인간 사이의 보이지 않는 대화를 매개하는 장(場)이다.

특히 물의 기운은 오래전부터 풍요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져 왔다. 끝없이 흐르고 모이는 물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때로는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은유로 자리한다. 나는 물의 흐름을 통해 자연의 이미지가 인간의 바람과 운명, 그리고 내면의 깊은 소망과 맞닿는 순간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

‘미묘한 흐름(Subtly flow)’이라는 이번 전시는 자연이 만들어 내는 섬세한 리듬과 흔적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된 감각과 기억을 일깨우고자 한다. 관람객은 작품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발견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과 공명하는 매개체로서의 또 다른 흐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김민주\_다이아몬드



서울특별시 2025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진예술 축제인 제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2025 PASK KOREA PHOTO FESTA)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로 많은 서울 시민에게 사진예술의 즐거움을 알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예술로서 사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시민들에게 사진을 통해 문화예술이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는 기회가 되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표방한다. 전시 기간은 2025년 12월 4일(목)부터 12월 7일(일)까지 양재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전시예술로서 사진예술의 매력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 7일(일)  
**장 소** 양재aT센터 제1전시장  
**개전식** 2025년 12월 4일(목) 오후3시  
**주 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 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 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의회



- \_ 특별전 | 故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 \_ AI 이미지 콘테스트 &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 \_ 서울 특별전 - 서울의 풍경
- \_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
- \_ 특별전 '장가계'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 \_ 사진학과 교류전



특별전 I

故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찰나를 담아,  
스스로 역사가 되다

전시 큐레이터

박옥수(본 협회 지문위원,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故이경모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 발기인으로 한국 사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명이다. 1946년 호남신문 사진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경모는 해방 직후부터 여순사건, 전국의 풍경과 문화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시대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그의 사진은 비극적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폭력성보다 그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과 풍경을 응시하며, 보도사진을 넘어 예술로 승화된 기록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의 대표작과 함께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들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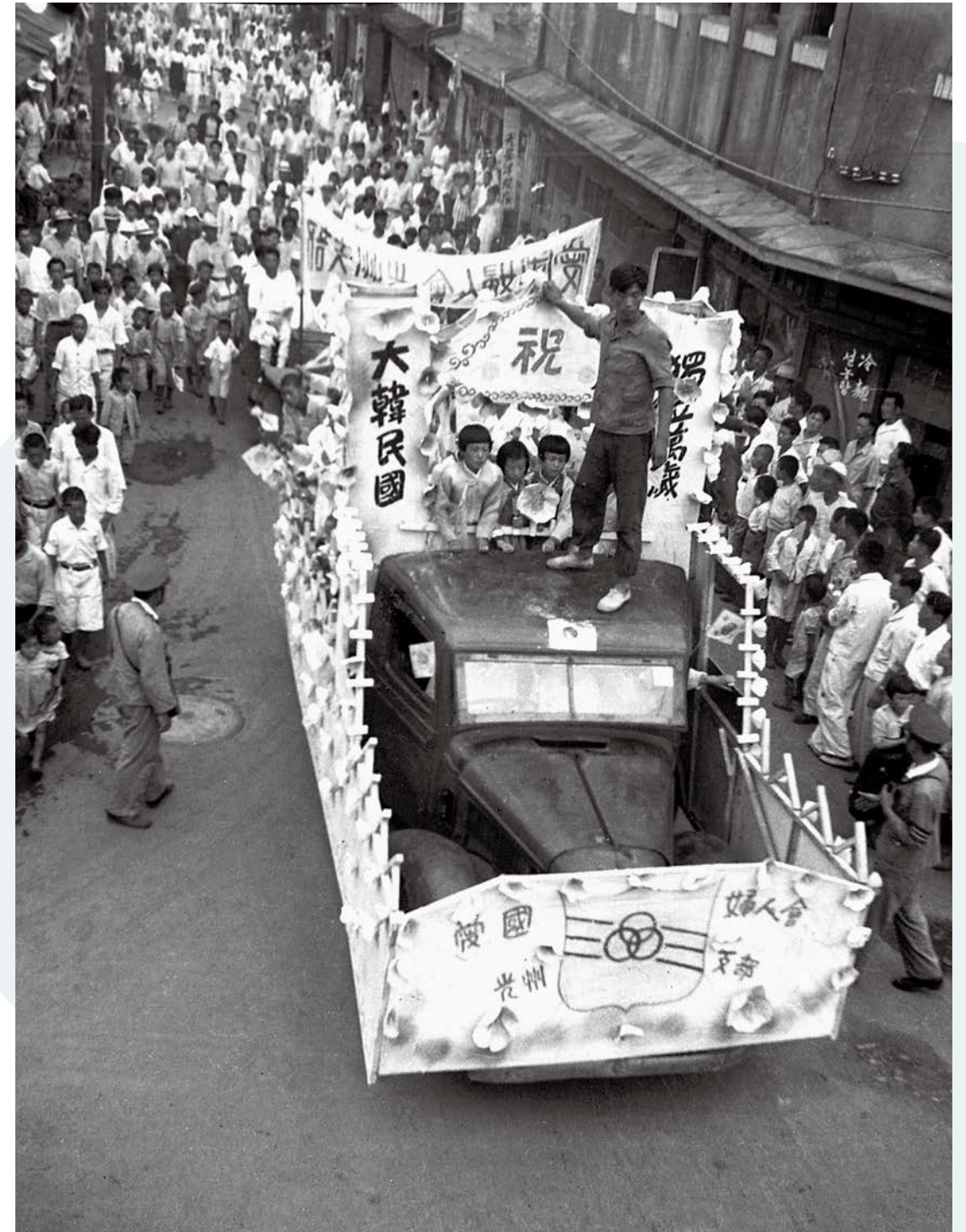
작가가 담아낸 찰나는 단순한 사진작품을 넘어 한국 근현대사와 사진사의 역사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사진작가 이경모의 시선을 따라 한국의 역사와 사진예술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경모\_17상)1950.6-서울 중구-한국은행,상업은행본전-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



©이경모\_1953.9-서울 중구-구 서울시장 옥상에서 내려다본 태평로 일대



©이경모\_1948.8.15-전남 광주 총장로-정부수립축하 시가행진





©이경모\_1952.6-전남 광주 송정리역-전선으로 출발하는 기갑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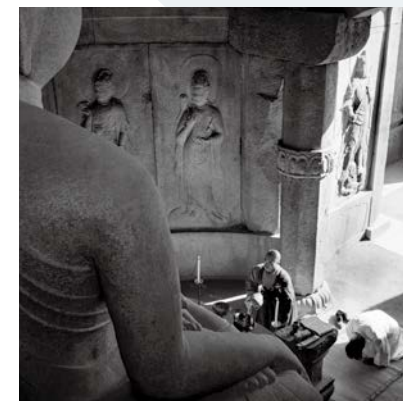
©이경모\_1950.10-경남 진양부근-호남쪽으로 진군하는 미군 선발대



©이경모\_1951.1-전남 장성-화랑부대 작전을 지원하는 민간인 노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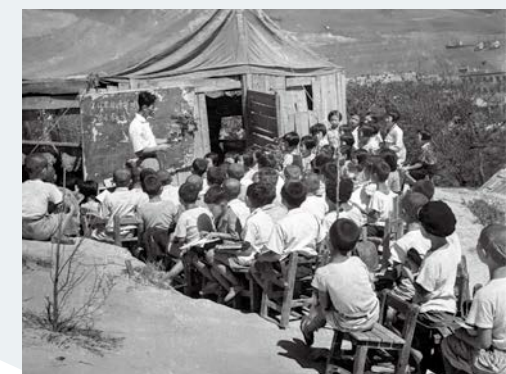
©이경모\_1951.1-경기 안양부근



©이경모\_1957.3-경주 불국사 석굴암 (2)



©이경모\_1953.7-경기 문산리-유엔군 휴전협상 대표단을 태운 헬리콥터가 개성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경모\_1951.7-부산-피난지 천막학교 수업장면



## AI 이미지 콘테스트 &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새 바람 새 물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사진예술은 기술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표현의 장을 열고 있다. 2025년 AI 이미지 콘테스트와 청소년사진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상상한다.

AI 이미지 콘테스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이미지 생성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청소년사진제는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대를 담아낸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번 전시는, 기술과 참여라는 새로운 사진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며 사진예술의 상상력과 즐거움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 AI 이미지 콘테스트 수상작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대상 | ©이은석(일반)\_깨지기 쉬운 미래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최우수상 | ©김희(청소년)\_빈자리의 몫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우수상 | ©박성준(청소년)\_흘러가는 삶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우수상 | ©김하림(일반)\_서울의 밤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특선 | ©고예진(청소년)\_가짜 웃음 판매소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특선 | ©김병렬(일반)\_숙면의 조건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특선 | ©최재희(일반)\_고요한 밤, 역사의 숨결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특선 | ©김혜경(일반)\_기억의 조각



2025 AI이미지콘테스트 | 특선 | ©윤홍선(일반)\_책가도1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대상(고등부) | ©김서윤\_바라보다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대상(초중등부) | ©이시윤\_빙판의 주인공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최우수상(초중등부) | ©신소을\_지나간 시간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최우수상(고등부) | ©강현준\_가을숲 사이로 흐르는 심장선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우수상(고등부) | ©김용환\_나만의 스포트라이트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우수상(고등부) | ©신윤호\_태양 너머로 출발하는 여정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우수상(초중등부) | ©이준후\_순간의 유대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우수상(고등부) | ©전대현\_도시가 그리는 빛의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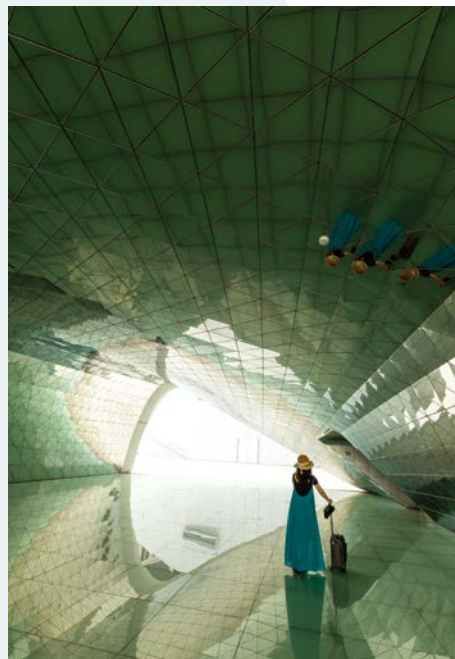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특선(고등부) | ©신준우\_격자 속의 하루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특선(고등부) | ©김명준\_가장의 무게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특선(초중등부) | ©이진모\_봄빛 위에 놓인 레고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특선(초중등부) | ©이채안\_파라다이스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특선(고등부) | ©오무영\_빛의 끝을 향해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특선(고등부) | ©박성준\_노을에 묻은 어린 날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특선(고등부) | ©박준우\_세월의 위엄을 느껴라



제3회 한국청소년사진제 | 특선(고등부) | ©손다빈\_천년의 밤을 그리다



## 서울 특별전 서울의 풍경

서울의 구는 각기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각 구의 사진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기억을 시각적으로 기록한다.

관람객들은 익숙하고 또 일부는 새로운 공간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선과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서울이란 큰 도시 안에 숨쉬는 25개의 기억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이야기다.

이번 전시는 그 이야기를 따라 걷는 여정이며 서울을 살아가는 모두의 공간적 정체성과 기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임남석(관악구)\_연주대의 사계



©이옥행(강북구)\_도봉산 봄



©김경애(강서구)\_허준 축제





©김천숙(동대문구)\_영취원



©조금순(동작구지부)\_환영해요 동작



©박광보(도봉구)-도봉구의 살림집 도봉구청 청사



©김원기(광진지부)\_광진의 관문



©한서정(송파구)\_아름다운 도시 송파



©김상수(용산구)\_남산



©박주형(영등포구)\_여의도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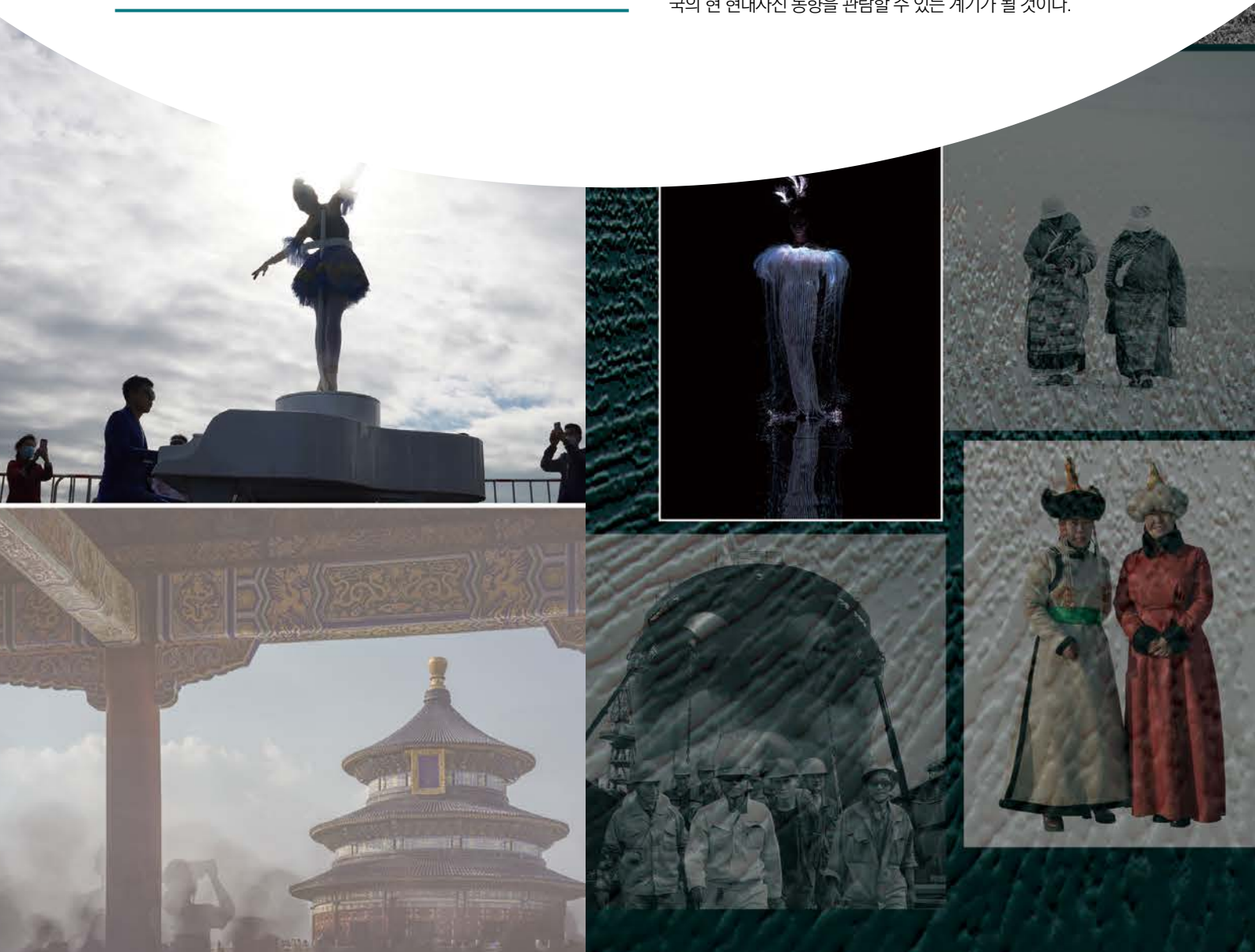
©홍창일(중구)\_서울 중구 전경



##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 대륙의 숨결

이번 사진축전에는 한국과 중국의 양국가를 대표하는 사진예술 문화 단체인 교류전을 통해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양국간 사진예술 문화 교류 강화 및 세계 사진 흐름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25 베이징국제사진주간 초청으로 중국서 열린 한국사진 예술전에 이어 이번에는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교류전에는 사진작가 된 티에쥬, 푸진치, 쉰 아룬, 우 리, 신 민, 양 홍바오, 자오잉신 작가를 초대해 특별 교류전을 마련했다. 이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간, 중국의 현 현대사진 동향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양 홍바오 杨鸿宝

베이징국제사진주간 간행위원회 부주석·사무총장이며, 베이징사진가협회 부주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80년대부터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다양한 신문과 잡지에 1,000여 점의 사진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0여 점은 국가·성·시 단위의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현재 중국예술사진학회와 중국뉴스사진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패션의 경계를 재구성하다》는 2025 베이징패션위크의 주제인 “조소신생(潮塑新生)”을 배경으로 한다. 전통과 혁신, 중국적 감성과 국제적 요소가 교차하며 미래지향적 패션 이미지를 베이징의 도시 풍경 속에서 새롭게 그려낸다.



©杨鸿宝-重塑时尚边界 양 홍바오-패션 경계를 재구성하다



©杨鸿宝-重塑时尚边界 양 홍바오-패션 경계를 재구성하다



©杨鸿宝-重塑时尚边界 양 홍바오-패션 경계를 재구성하다



## 단 티에쥬 段铁军

톈진시 문화관광사진협회 회장으로, 1974년 톈진미술학원 유화과를 졸업했다. 그는 톈진미술가협회와 중국사진가협회 회원으로서, 1973년부터 미술·사진 작품 및 관련 저작을 합쳐 1천여 점을 발표해 왔다. 그는 깊은 회화적 기반과 조형 능력을 바탕으로 예술적 탐구를 지속해 왔으며, 회화를 통해 고유한 미감과 표현력을 구축했다. 동시에 사진창작에도 전념하며, 특히 다큐멘터리적 시선으로 이미지의 예술성과 사

회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그는 수십 년간 국내외 주요 사진전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국제 사진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이끌고 다양한 국가에서 주제전시를 개최해 왔다. 또한 20여 권의 사진예술 저서를 출판하며 중국 사진계 안팎에서 폭넓은 주목을 받아 왔다.



©段铁军 《天路牧云·守望净土》 단 티에쥬\_천로목은 정토를 지키는 이들



©段铁军《天地为庐·倦枕青山》 단 티에쥬\_천지에 집을 짓고, 푸른 산을 베개 삼다



©段铁军《格桑风骨·康巴明珠》 단 티에쥬\_겉상의 기개, 캄바의 진주



## 푸진치 付金琪

푸 진치는 중국전력사진협회 부비서장이며, 중국 국가전망공사(国家电网) 산하 허베이 북부 지역 법인인 '지베이전력회사(冀北电力公司)' 사진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허베이 성사진가협회, 중국뉴스사진가협회, 중국저작권사진협회 회원이다.

연작 《장베이이 바람은 베이징의 불빛을 밝힌다》는 2022년 허베이성 직공사진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작품 《풍설 속의 전력인》은 베이징시 국자위 사진대회 1등상을, 《풍설의 격전》은 제5회 중국전력사진대회 우수상을 받았다. 그의 사진은 인민일보, 중국사진보, 중국전력보 등 주요 매체에 여러 차례 실렸다.

그는 소속 기관에서 여러 차례 사진전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직했으며, 직접 창작·연출한 미니영화 《장베이이 바람은 베이징의 불빛을 밝힌다》와 《집결하면 승리한다》는 중국전력 '오스카 금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付金琪-对话 푸진치\_대화



©付金琪-流动的红 푸진치\_흐르는 붉음



©付金琪-黄山 组照1 푸진치\_황산 연작1



©索亚伦 - 喜悦2013青海 썬야런\_환희 2013, 칭하이



©索亚伦-藏民2015西藏 썬야런\_티베트 사람들 2015



©索亚伦 - 归途2025西藏 썬야런\_귀로2025, 티베트

## 썬야런 索亚伦

썬야런은 중국예술사진학회 부비서장이며 중국사진가협회 회원이다. 베이징에서 성장하며 청소년 시기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저널리즘 학부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1987년 중국사진가협회, 1993년 중국예술사진학회에 가입하며 전문 사진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그의 사진 작품은 중국, 독일, 일본 등 여러 사진 매체에 게재되었으며, 중국 전국影展, 제1회 전국사진예술작품전, 프랑스 국제사진예술살롱, 미국 세계직업사진가전 등 국제 전시에 다수 참여했다. 2004~2008년에는 독일 본(Bonn)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개최했고, 일본·프랑스·미국·루마니아 등에서도 폭넓게 전시되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개인 주제전을 열고 있다.

썬야런의 작업은 자연과 환경, 다양한 삶의 장면, 초상, 산업 분야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창작 활동과 더불어 사진 전문 행사 및 전시의 기획·디자인·실행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독립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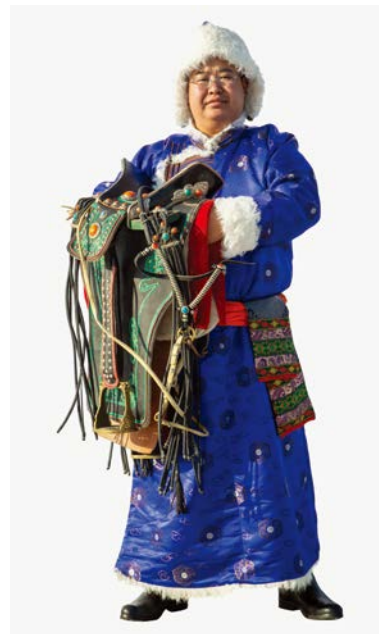
## 우리 吴力

중국사진가협회 이사이며, 중국전력사진가협회 상근 부주석·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전력 분야 시각기록과 예술 사진의 발전을 주도해 온 주요 기획자이자 사진가이다.

그는 2010년 제21회 전국사진예술전에서 《정상(巔峰)》으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16년 캐논이 선정한 '10대 전문 사진가'에 포함되었다. 2016년 타이베이 국제사진예술교류전 《망호(望湖)》, 2017년 상하이 국제사진예술전 은상 《광하(广厦)》, 2017년 이수이 국제사진축제 개인전 《망호》 등에 참여했다. 2019년에는 한국 인천해양국제사진제 개인전 《천경(天境)》, 대리국제영화 개인전 《상실(伤逝)》 등을 선보였으며, 서호 관련 프로젝트와 다수의 국제·국내 페스티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우 리는 2020년 전국산업사진예술대전, 2021년 《광휘의 여정, 빛의 사자》 중국전력사진전, 2023년 《중국 전력 140주년》 대형 사진전을 조직·기획했다. 2025년 제5회 전국전력노동자사진예술전을 총괄 기획하며 평양국제사진전 우수조직상을 수상했다.

대표작 《몽골인》은 몽골 문화에 대한 미시적 관찰로, 외형을 넘어 살아 있는 문화 유전자 지도를 드러낸다. 복식·도구·정신성에 이르기까지 몽골인의 정체성과 문명적 특질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다.



©吴力-蒙古人 우리\_몽골인



©吴力-蒙古人 우리\_몽골인



©吴力-蒙古人 우리\_몽골인



©辛敏-工业的脊梁 新民-산업의 척추



©辛敏-工业的脊梁 新民-산업의 척추

## 신민 辛敏

신 민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 출신의 사진가로, 중국사진가협회 회원이며 랴오닝성사진가협회 이사, 랴오닝성사진예술가협회 부주석·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국제 교류전과 사진예술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2023년 '다채로운 구이저우 제16회 중국원생태국제사진대전'과 '중·형·슬 사진가의 시선으로 본 랴오닝' 해외 순회전에 참가했으며, 2024년에는 중국·몽골 수교 75주년 기념 '랴오닝-몽골 사진 교류전'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광영요운(光影辽韵) 랴오닝 사진예술전'에 참가했다.

최근에는 국제 협력 전시에 집중하여, 2025년 한국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사진연합전'과 제11회 '티베트·랴오닝·마카오 3지 사진전'에 참여했다.



©辛敏-工业的脊梁 新民-산업의 척추





©赵迎新-龙口海景 자오잉신\_룽커우 해경

## 자오잉신 赵迎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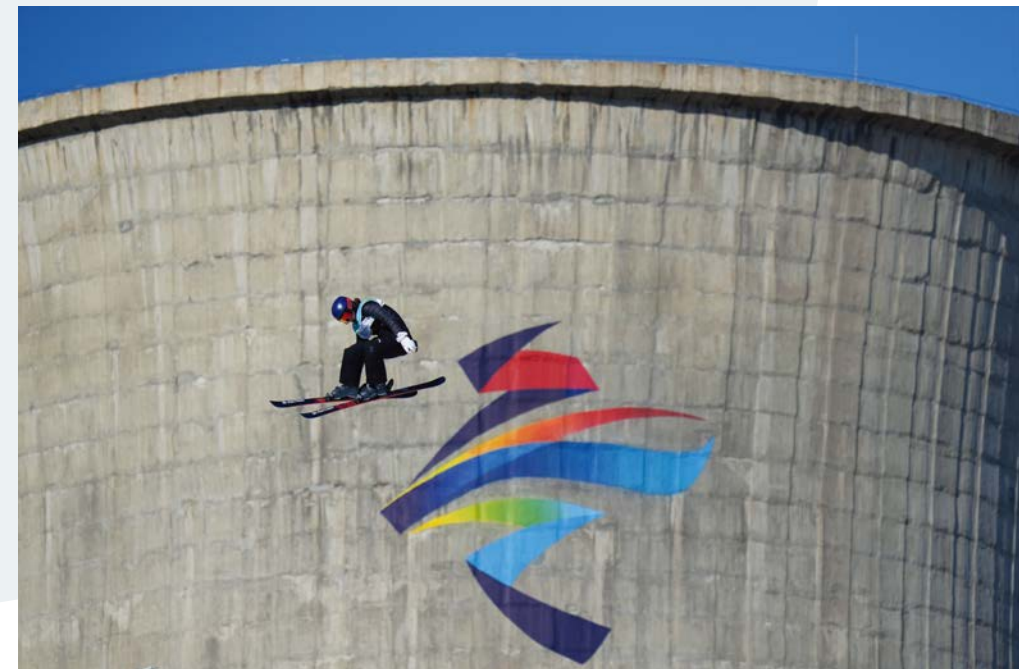
중국여성사진가협회 부주석, 베이징국제사진주간 예술감독, 중국예술사진학회 프로젝트 집행부주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9년 중국인민대학교 신문학부 사진전공을 졸업한 후 신화통신 사진부에 배치되었다. 1996년에는 신화사 최초의 해외 파견 여성 사진기자로 영국 런던에 주재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 미디어 운영부 사진서비스처 처장을 맡아 올림픽 역사상 첫 여성 사진서비스 운영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중국사진출판사 사장, 중국사진보 사장을 역임하며 《구술영상사》, 《중국사진사》, 《카파 컬렉션》, 《사진의 본질》, 《이미지 제조자들》 등 영향력 있는 사진서를 기획·출판했다.



©赵迎新-厦门马拉松途中风景 자오잉신-샤먼 마라톤, 길 위의 풍경



©赵迎新-北京冬奥会谷爱凌夺冠 자오잉신-베이징 동계올림픽, 구아이링의 우승



특별전

# '장가계'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장가계는 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인류의 기억과 자연의 흔적을 한곳에 아카이빙하여 남기고 있는 도시이다. 이곳은 세계 각지의 문화와 자연이 남긴 시간의 결을 품고 있으며, 그 자체가 천 년의 바람과 안개 속에서 조형된 대지의 거대한 조각품이다.

이번 작품들은 이러한 장가계의 풍경 속에서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 낸 질서와 조화를 포착한다. 단순한 아름다움의 재현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고, 웅장함을 넘어서 침묵의 세계를 담아냈다. 그 안에는 자연이 인간에게 남긴 메시지가 서려 있고, 이 전시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임을 일깨워주는 예술적 선언이다.



©覃文乐 친 원러\_秋染峰林 가을빛에 물든 봉림

## 친 원러 覃文乐

중국사진가협회 회원으로, 중국산업사진가협회와 후난성사진가협회에서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중국 장가계 세계유산사진대전'의 총괄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국제 사진교류를 주도해 왔으며, 장가계 시사사진가협회 제5·6대 회장을 역임했다.





©董兵 《天子山秋韵》 董兵\_천자산의 가을 선율



©董兵 《天子山秋韵》 董兵-천운산 설운



©董兵 《天子山秋韵》 董兵-천자산의 밤빛

## 동 빙 董兵

중국사진가협회 회원이자 중국사진저작권협회 지구급 부수석대표이며, 후난성사진가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장가계시사진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장가계시 정협 제8기 위원(문예계)으로 활동했다.

그는 중국 장가계 세계유산사진대전 1·2·3회 총괄 큐레이터로 참여하며 지역의 국제 사진 교류를 주도해 왔다. 장가계와 후난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사진예술로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작품은 전국·성·국제 사진대회에서 다수 입선 및 수상했다. 《공중의 무용수》는 제26회 전국사진예술전에 선정되었고, 《공중 회전》은 제18회 후난성사진예술전 동상을 수상했다. 《단오의 격전》은 세계사진대회 '변성·평항 글로벌 사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또한 《우강 지모의 수중 반영》, 《토가족 기瓦匠》 등 여러 작품이 국제·국내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원자계 풍광》 시리즈는 전국 대 중전원림학 교재에도 수록되었다.



©刘英 《峰林瀑布》 류잉\_신비로운 안개를 토하다

## 류 잉 刘英

중국사진가협회 회원, 후난성사진가협회 이사이며 장가계시사진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년간 장가계의 기봉·협곡·운해 등 독특한 자연 경관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며 풍경사진에 매진해 왔다. 100여 점 이상의 작품이 각종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특히 《기봉에 구름이 일어날 때 아 바라보다》는 제2회 진수중화(金鼎奖) 전국풍광사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대표 연작 《무릉의 기봉》은 후난 장가계의 산악 지형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선경'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장가계의 초현실적 풍광을 가장 잘 드러낸 작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刘英 《峰林瀑布》 류잉\_봉림폭포



©刘英 《峰林瀑布》 류잉\_전원에 비친 봉림



유수찬 -  
장가계,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유수찬\_장가계-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유수찬\_장가계-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유수찬\_장가계-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유수찬\_장가계-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 사진학과 교류전

# 미래로 향한 시선

지금 이 시대의 사진예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과 시선을 가진 젊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이번 교류전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중부대학교, 재능대학교 총 3개 학교 사진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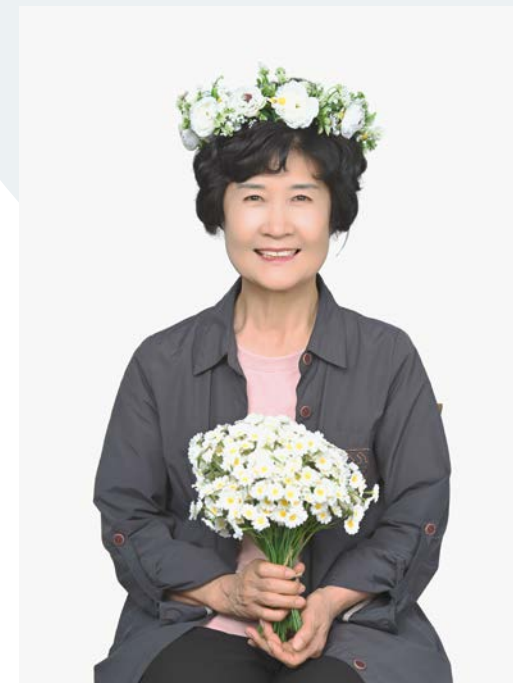
실험적이고 신선한 시도, 개인적인 이야기와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사진들은 사진예술의 현재를 보여주고, 또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전시는 젊은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응원하고 사진예술의 다음 세대를 함께 상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 홍익대학교



©전도연\_수족관



©백서희\_월명동 의자



©서인영\_환송





재능대학교

JEI 재능대학교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추윤혁\_선수



©대은채\_smosi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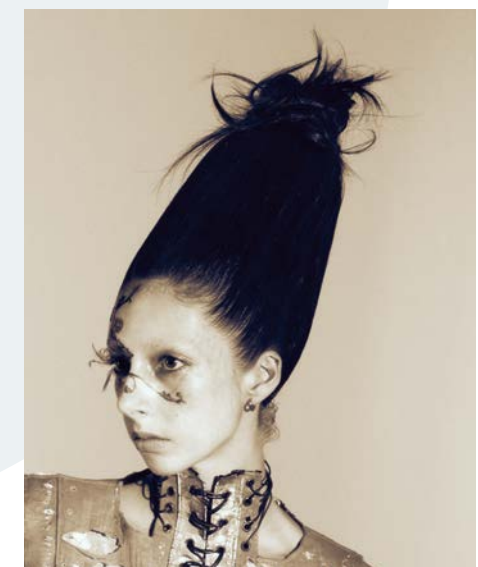
©박유빈\_거베라



©안제현\_자연생태계



©김민서\_Origin\_정물의 시간



©안다인\_d ocu





©김승철\_하이라인에서 본 첼시



©김승철\_타임스퀘어

## 브로드웨이로, 첼시마켓으로 뉴욕을 걷다

김 승 철(부천)



©김승철\_리틀아일랜드에서 바라본 맨하튼

세 번째 뉴욕을 방문했다.

맨 처음의 뉴욕은 낯설고 거칠고 두려움을 머금은 설레임 이었다면  
두 번째의 뉴욕은 자신감과 조금의 익숙해진 거리에서의 여유였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의 방문은 그 모든 기억을 품은채 도시의 곳곳을 느끼고자 하는 여정이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좀 더 현지인의 시선으로 뉴욕을 보고 느껴보고 싶었다.

JFK공항에서 내려 브루클린으로 향하는 우버택시 창밖으로 스쳐보이는 벽화와 낡은 건물들이 나를 반겼다.

작은 딸의 정성과 도움으로 호텔대신 컬럼비아 대학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첼시마켓에서 갓 구운 쿠키에 커피 한잔을 하고 하이라인을 걸었다.  
고가철도를 개조한 그 길 위에서 뉴욕의 가을 비바람은 도시의 기억을 품고 몰아쳤다. 거리의 벽마다 그려진 벽화는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럽고

묘하게 따뜻했다.

해가 질 무렵 블루노트의 조명아래서 들려오는 짜즈선율은 숙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주말 브로드웨이의 대로변에서의 길거리 마켓의 다양한 먹거리, 거리공연, 수많은 인파는 뉴욕의 또다른 얼굴이 있었고 길거리 카페나 벤치에서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 신문이나 책을 바람을 맞으며 보고 있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여행 중 미국독립전쟁의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 국민에게 자유와 독립의 상징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유명한 워싱턴DC도 잠시 들렸다. 링컨기념관, 국회의사당, 백악관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약 170m 오벨리스크는 맞지 못할 장엄함으로 내면의 기를 가득 받은 기분 좋은 기운이었다.





©김승철\_리틀 아일랜드



©김승철\_허드슨강변 피어57



©김승철\_브로드웨이

뉴욕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건물들의 지속적인 리노베이션으로 카페와 각종 상점이 생겼지만 거리의 예술가들과 자유로운 분위기는 늘 그대로였다. 뉴욕의 매력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본질을 유지하는 힘이 있다고 느꼈다.

첼시와 브로드웨이 경험은 뉴욕이 단순히 예술의 도시가 아니라 예술이 생활 속에 녹아 있는 도시임을 실감케 했다. 거리의 벽화, 버스킹, 소규모전시, 자연 경관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빠르고 바쁜 일상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 같았다. 거리에서나 공원에서도 평일이나 주말 모두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독서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자유와 자존감을 느꼈다.

처음의 거칠고 두려움 설렘, 두 번째의 자신감, 익숙함 그리고 이번의 깊은생각은 뉴욕은 늘 변하지만 그 변화속에서도 나에게겐 변치 않는 감정하나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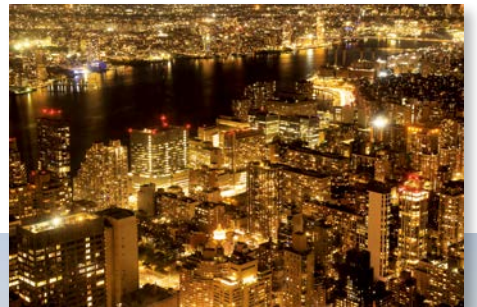


©김승철\_워싱턴DC 공원



©김승철\_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예술이 삶에 녹아든 도시 뉴욕을 걷다보면 나는 어느새 뉴욕커가 되어있다. 빠르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 거리에서 나는 커피 한 잔, 갓 구운 쿠키의 깊은 향에 빠져든다.



©김승철\_숨쉴전망대에서 바라본 맨하탄 야경



©김승철\_워싱턴DC 오벨리스크





전시장 전경 - 닷미술관 제공

# 그만의 빛으로 터치한 산과 물 민병헌 사진전 - 산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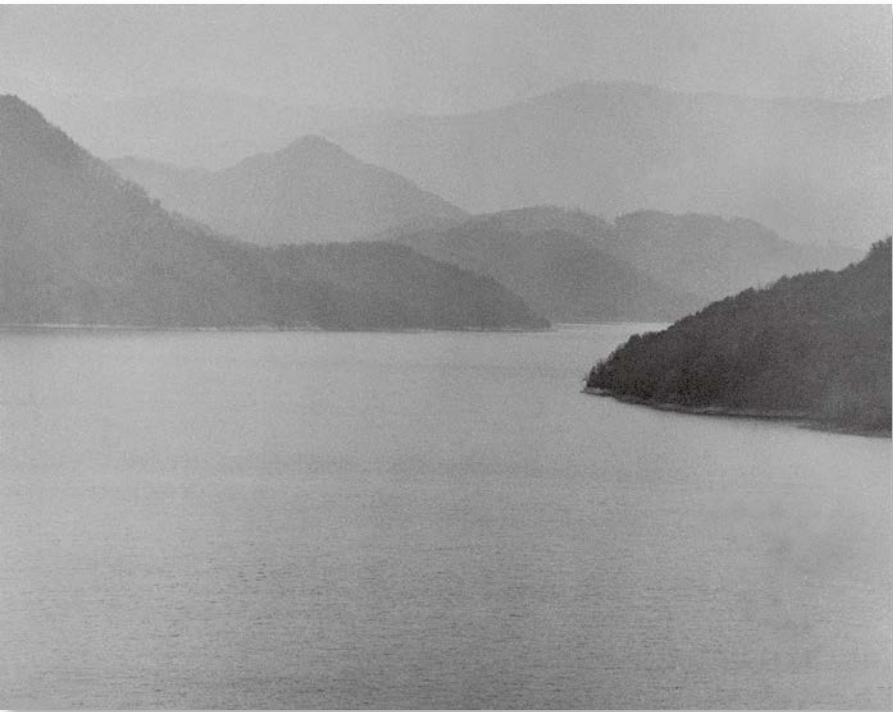
글 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닷미술관에서는 90년대 작품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는 ‘산과 물과 빛’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된 민병헌 작가의 사진전 《산수경》을 전시하고 있다. 민병헌은 독학으로 사진을 시작해 자신만의 직관적인 감성과 시선을 은은한 화색조의 프린트를 통해 표현하며 ‘민병헌 그레이(grey)’라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할 정도로 자신만의 고유한 시각 언어를 확고히 한,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이다. 1987년 〈별거 아닌 풍경〉시

리즈에서 출발해 〈잡초〉, 〈누드〉, 〈안개〉, 〈나무〉, 〈새〉, 〈강〉, 〈이끼〉 등 다양한 소재를 넘나들며 극도의 섬세함으로 완성한 은은한 화색조와 부드러운 질감, 잔잔하고 담백한 시선으로 서정적이고 아스라한 풍경 등을 젤라틴 실버 프린트만으로 표현하는 암실의 고수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온전히 직관과 감각에 의지한 촬영과 암실에서의 길고 고된 인화 과정을 통해 그만의 독보적인 사진 창작 세계를 보여준다. 한국과



전시장 전경 - 닷미술관 제공



©민병헌\_강 river, rt158, 2011. gelatin silver print, 27.5x35.5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시를 했으며,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의 지배하에 첨단 촬영기법과 보정기술이 넘쳐나는 현 세상에서 수십여 년간 암실에서 흑백 인화를 이어감으로써 섬세한 흑백사진 프로세스의 경지를 구현하고 서양에서 시작된 ‘사진’ 매체로 보이지 않는 동양의 심미적 ‘진경’을 담아낸 사진가 민병헌의 원숙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이 거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거기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거나, 모습을 바꾸면, 우리는 그제 서야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결핍의 순간에만 다시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대단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자 하며, 그것들을 정말 몸소 느낀다. - 민병헌



©민병헌\_강 river, rt133, 2012. gelatin silver print, 99x116





©민병헌\_남녁유람 namnyukyuram, st719, 2022. gelatin silver print, 20x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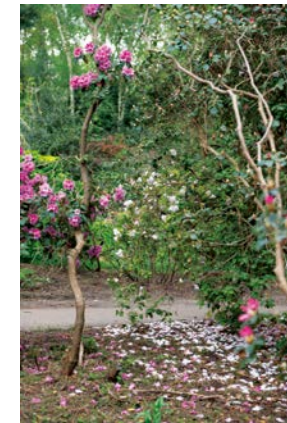


©민병헌\_남녁유람 namnyukyuram, st178, 2020. gelatin silver print, 20x25

‘山水景’은, 산과 물에 빛이 닿은 풍경이다. 별다를 것 없는 이 땅을 다시 주목하여 아름답게 보게 해준다면 이 사진들은 특별하다. 사진가 민병헌의 첫 시리즈 제목은 “별거 아닌 풍경”(1987년)이었다. 그 후 “잡초”(1990년대) 시리즈로 그는 별거 아닌 것들을 아름다운 흑백 사진으로 변모시키는 암실의 고수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사진에서 이미지만큼 중요한 것이 은입자와 종이가 만나는 아날로그적 물성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리적인 노동과 철저한 사진적 조절을 통해 암실에서 탄생하는 다양한 크기의 프린트는, 암실 작업을 경험해 본 이들에겐 더욱 경이로운 지경이다. - 종략 - 민병헌 작가는 자신의 사진을 동양적 풍경이라 의도하지 않는다. 마음이 이끄는 감각을 따라, 눈이 이끄는 본능을 따라 한 시절 아쉬움 없이 자유롭게 사진기를 들고 노닐었음을 작가는 고백한다.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질문으로 오랫동안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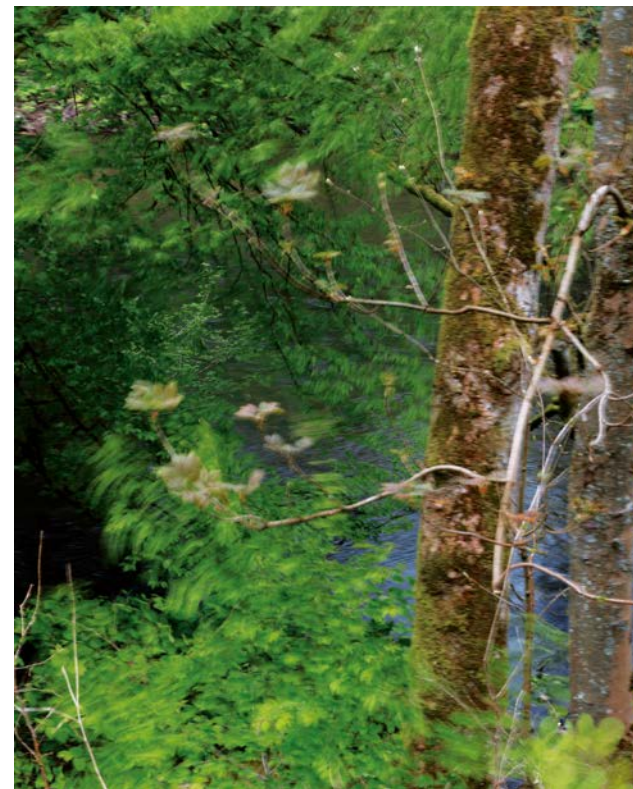
©나이젤 발다치노\_〈promise litter〉시리즈, 2025, archival inkjet print



©나이젤 발다치노\_〈promise litter〉시리즈, 2025, archival inkjet print



©나이젤 발다치노\_〈promise litter〉시리즈, 2025, archival inkjet print



©나이젤 발다치노\_〈promise litter〉시리즈, 2025, archival inkjet print

한 소재를 다룬 작가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만나는 완성을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 - 기획자 주상연

메인 전시는 산수경이지만, 닷미술관에는 미술관 건물의 입구에서 살짝 왼쪽으로 빠진 위쪽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소담스러운 전시공간이 하나 더 있다. 현재 그 곳에서는 지중해의 섬 몰타(EU)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로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는 ‘나이젤 발다치노(Nigel Baldacchino)’의 개인전인 《PROMISE LITTER 숨겨진 잔해》가 역시 28일까지 전시중이다. 이 전시에서는 땅과 그 아래 층위가 서로 맺어지는 관계에 주목한 작가가 살아있는 세계를 이루는 연결라인을 탐구하는 사진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그는 식물과 꽃,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과 확산을 사진 시퀀스로 기록하며, 순간적으로 빛나고 진동하며 차오르고 움직이는 세계의 박동과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나이젤 발다치노는 이 전시의 기획을 담당한 프랑스 출신 사진작가이자 큐레이터인 ‘앤 이멜레(Anne Immelé)’, ‘베네딕트 블롱도(Bénédicte Blondeau)’와 함께 사진 전시 프로젝트 ‘those eyes





프레임 전시장 전경 - 닷미술관 제공

- these eyes - they fade'를 공동 설립했으며 프로젝트에서 그들은 대상보다 응시하는 행위에 주목하고, 시공간에 담긴 세계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 맺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업을 주로 다룬다. 기획자인 앤 이멜레는 이 전시는 주로 식물, 꽃,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과 확산을 사진 시퀀스로 그려, 순간적으로 빛나고, 차오르고 움직이고 열망하는 세계의 박동을 드러내고 있으며, 관리된 정원이란 개념에서 벗어난 야생적이고 원시적인 기운과, 교배하고 퍼져가는 에너지와 싹을 틔우는 힘에 주목하게 하여 물리적인 땅과 땅 아래 관계에 대한 생각, 자연 생명의 박동, 생동적 유동성 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하고 있다.

기회가 닿아 경기도 광주의 초월읍을 방문할 수 있다면 한 번의 방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 개의 전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속의 전시장이라는 평안한 환경과 마음을 갖출 수 있는 곳에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25년을 보내며 좋은 전시와 사진집들을 많이 접해 그동안의 작품들과 작업들을 총정리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 나갈 작업들과 새로운 활동들에 대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벅빚빚한 사진이  
진짜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개소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유병용\_아이폰 카메라 파노라마로 찍은 성 베드로 대성전

# 카메라 두고 떠난 여행 I 이탈리아와 독일, 길 위의 노트

유 병 용(서울)

교환 교수로 베를린에 나가 있는 딸과 쌍둥이 외손녀들이 보고 싶어 지난 10월 이탈리아와 독일 몇 도시를 다녀왔다. 여행 중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몇 차례 올렸던 [유럽 여행 잡기]를 탐색, 정리했다.

## #1

자칭 사진쟁이가 카메라를 집에 놔두고 오롯이 몸과 마음으로만 느끼는 2주간 유럽 여행을 왔다. 예쁜 손녀들과 가족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물론 손에 쥔 스마트폰이 그냥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카메라 없는 흥가분한 상태가 참 좋다. 이 나이에 무엇이 부럽고 아쉽겠는가.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게 소멸하는 꿈을 꾸며 산다. 로마에서 첫 밤을 지낸 새벽 공기가 좋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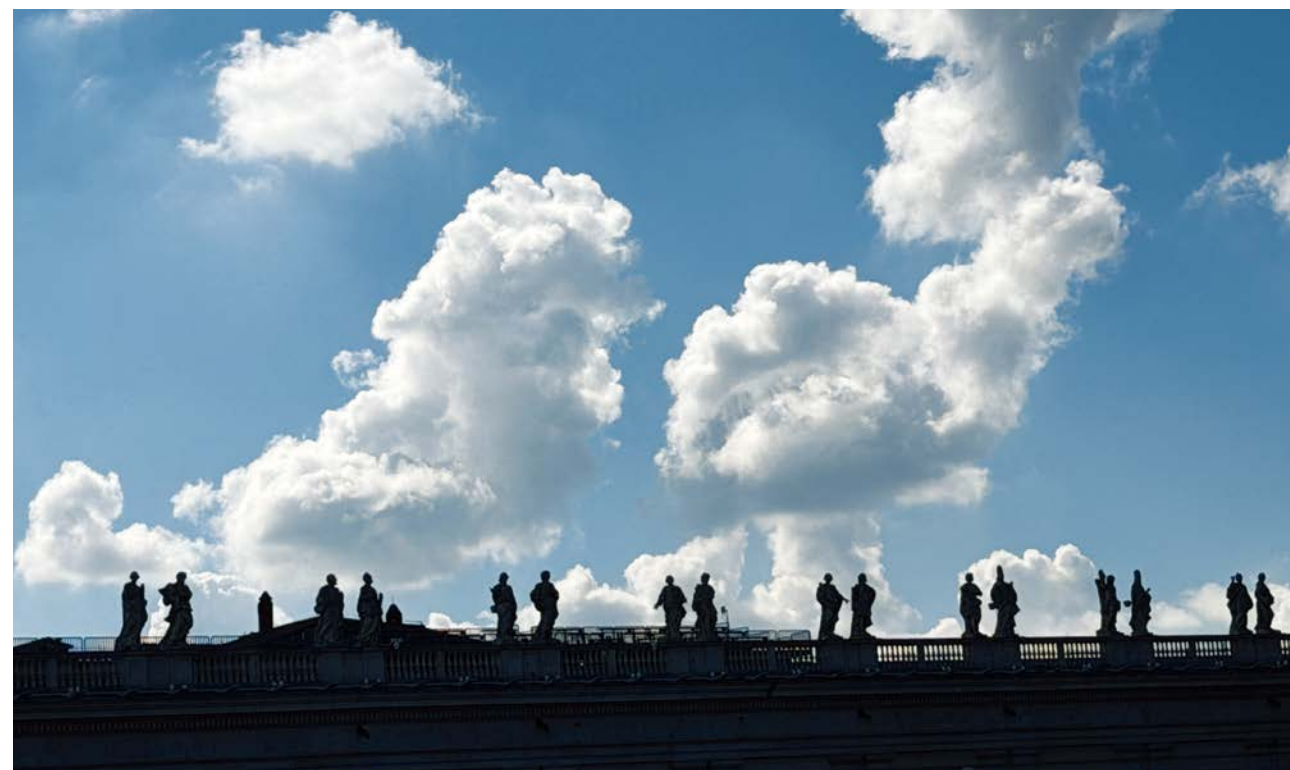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는가. 단체관광이 아닌 개별여행의 장점은

여유로움이다. 계획이 좀 어긋나도 별 탈 없이 즐겁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곁에 있으니.

## #3

1985년 봄, 런던에서 연수받던 기간 중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유럽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했지만, 늘 느끼는 것 중 한 가지는 어느 나라를 가든 찾아가는 장소가 매번 궁전, 성당, 박물관, 미술관 말고는 별다른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여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과 시스티나성당, 바티칸 미술관, 피렌체 두오모성당과 아카데미아미술관, 우피치미술관을 관람한다.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을 만나면 그저 반갑다. 수박 겉핥기식 인증 사진이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발걸음이다. 진지한 태도의 손녀들에게 좋은 추억이기를 기대하는 할배의 맘. 녀석들이 어른이 되면 그때 제 새끼들 데리고 와서 할배 얘기하겠지.

사진쟁이가 카메라를 놓고 흥가분한 여행을 즐긴다는 것,  
또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아닐까...  
이번 유럽 여행은 그렇게 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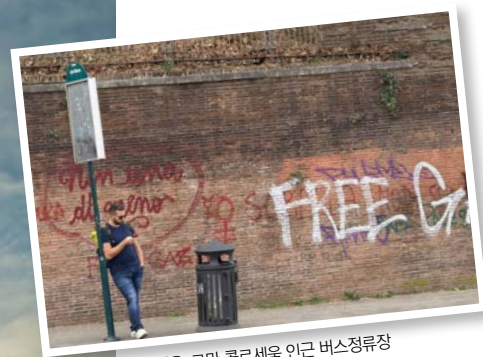


©유병용\_성 베드로 대성전 지붕





©유병용\_밀라노 두오모성당



©유병용\_로마 콜로세움 인근 버스정류장



©유병용\_밀라노 두오모역에서



©유병용\_기차를 기다리는 여행객 / 피렌체 중앙역

#### #4

이번 여행에 카메라를 갖고 오지 않은 것은 신의 한 수다. 무거운 카메라를 손에 꼭 쥐어지는 스마트폰이 대신해 주니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른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진가도 아니고, 사진이 직업도 아니어서 취미로 사진을 하는 주제에 모자랄 것이 없다. 사실 요즘 관광 명소를 굳이 애써 촬영할 필요도 없는 시대다. 어떤 곳이든 구글맵에서 검색해 보면 엄청난 양의 좋은 사진들이 차고 넘친다. 오늘 찾아간 피사의 사탑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다녀왔다는 증명을 해야 하니 인증사진은 필수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온갖 자세로 사진을 찍느라고 북새통이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내 예쁜 쌍둥이 손녀들 세워놓고 포즈 주문이 많다. 먼 훗날 기억을 도와 줄 증거물이다. 갑자기 롤랑 바르트가 말한

퐁크툼이 떠올라 혼자 웃었다. 나이 탓이다. 녀석들이 내 나이쯤 되었을 때 이번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번에도 예쁜 사진집 한 권 만들어 줄 요량이다.

#### #5

우리나라처럼 반도인 이탈리아 동북쪽 아드리아해에 있는 베네치아 섬은 모든 교통수단이 수상용이다. 곤돌라를 타고 다리 밑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은 너무 흔한 광경이다. 바닷가 촌놈 출신인 나는 비릿한 갯내음이 참 좋는데 베네치아는 이상하게 바다 냄새가 없다. 우리 어촌 풍경의 정겨움과는 거리가 멀다. 십수 년 전 월간 사진예술에 '그 섬에 가고 싶다'를 연재하며 여러 섬을 돌



©유병용[세 소녀와 한 소년] 조각 / 베를린 돔 인근



©유병용\_피사의 사탑을 구경하는 여행객



©유병용\_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 기념품 가게

아다녔고 포구 기행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걸고 어촌 풍광을 담아왔는데 언젠가 정리해서 펼쳐 보여야 한다는 마음뿐이다. 이번 '2025인천국제현대사진기획전' 초대 작품작도 '바다를 꿈꾸며' 연작이다. 이래저래 바닷가 촌놈 티를 내며 산다. 평생 다루고 있는 '내 고향 법성포' 사진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큰 숙제도 은근히 나를 압박한다. 먼 나라 섬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궁상 맞다. 산마르코 광장에서 비둘기들과 뛰어노는 내 새끼들 사진을 찍어주는 작은 행복. 내일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둘러 봐야겠다.

#### #6

로마-피렌체-피사-베네치아-밀라노를 돌아보는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떨어아가 살고 있는 베를린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고맙고 대단한 것은 '구글'이라는 괴물(?)과 챗GPT다. 구글맵, 구글번역, 구글렌즈와 우버앱, AI 앱만 잘 활용하면 그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그 어디라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지도책, 시티맵 들고 서툰 영어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며 헤매던 시절과는 판이하다. 요즘 서울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 손에 쥐고 돌아다니는 젊은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

다. 관광가이드 깃발 아래 단체로 움직여야 하는 패키지여행은 이제 노친네들이나 하는 여행이 되어가고 있다. 구글맵에서 식당, 숙소, 열차, 공연 등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주변 맛집 평점은 물론이고 목적지까지 이동 거리, 예상 도착시간,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니 굳이 누구 붙들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탈리아어, 독일어 몰라도 구글번역기면 좀 어색하긴 해도 충분하다. 더군다나 travel wallet 카드 한 장이면 굳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닐 필요도 없다. 환전, 현금 인출, 대금 결제, 예약 사전 결제 등 간편하기가 보통이 아니다. 우버 택시 부르면 걱정 없이 그저 타고 내리면 되니 이 또한 편한 일이다. 대부분 유럽 호텔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가성비 톡 떨어지는 데 비해 최근 리모델링한 아파트형 에어비앤비 숙소는 우리의 펜션만큼 깨끗하고 편리해서 좋다. 이 또한 구글맵에서 사진과 리뷰를 통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 실패할 확률이 낮다. 시대는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한다. 이 나이에도 호기심 갖고 이것저것 배워보는 이유다.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베를린의 가을빛이 퇴색되어 간다. 바람이 제법 차다. <1월호 계속>





©이수인\_파도에 갇힌 서도

## 한민족의 구심점 독도 그 심장의 울림을 담다

이 수 인(익산)

독도는 한반도 지도에서 작은 점 하나로 표시된다.  
그러나 그 작은 점 하나가 우리에게 심장처럼 소중하다.  
바로 그 곳에는 우리 한민족을 응집하는 구심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인\_울릉도에서 본 독도



©이수인\_독도 가는 길





©이수인\_여명 속 동도



©이수인\_삼형제굴 갈매기



©이수인\_오징어잡이배와 북두칠성

벼락같은 첫사랑처럼 독도를 만났다.  
카메라와 열애에 빠진 푸르른 그해 오월,  
망망대해에서 뱃멀미는 열병을 앓는 첫사랑 소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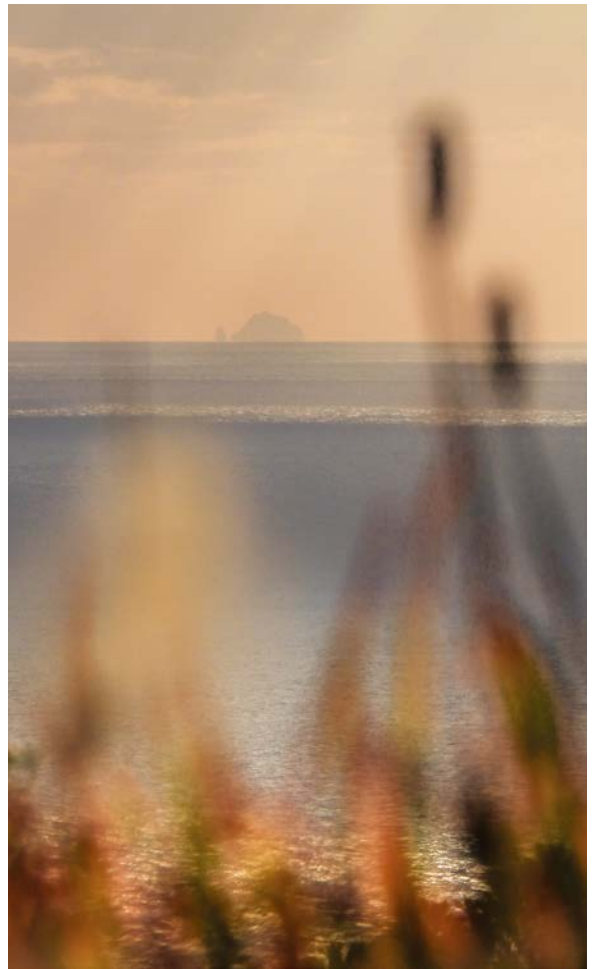
꿈에도 그리던 우리 땅 독도 선착장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두 발이  
둥둥 떠 있는 황홀한 기쁨이라니...  
동도와 서도 한가운데 서서 장엄하고 신비로움에 넋을 잃었다.

독도는 한반도 변두리의 점 하나가 아니다.  
그냥 솟아 있는 바위섬만도 더욱 아니다.  
누구한테도 넘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구심점이다.  
그런 자부심 하나만으로 독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게 활화산 같은 희열이었다.

바다의 숨결과 역사의 속삭임이 빛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라는 오롯함에 피사체를 향해 조리개를 만지고  
해풍에 절은 셔터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쫓대바위, 탕건바위, 천장굴, 삼형제굴...  
품고 있는 알을 지키느라 바싹 날을 세운 갯가갈매기의 당당하고 위엄 있는  
자태...

오늘 이곳에서 피사체로 멈춘 독도의 속살을 마중하는 우리 시신경이  
그곳 몽돌해변의 파도처럼 그대 가슴에도 일렁이는 공감의 여정이기를  
덜컥 사랑에 빠진 옛된 청춘인양...



©이수인\_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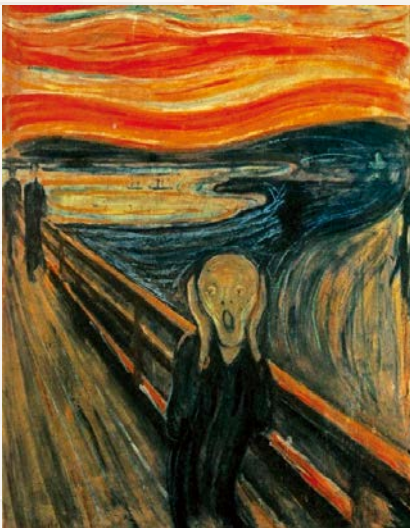


©이수인\_동도와 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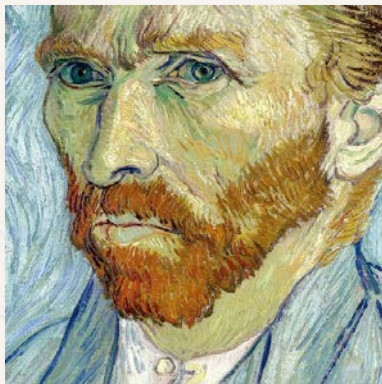


##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다 예술의 역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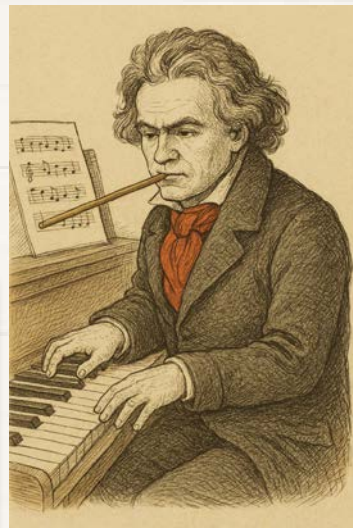
글 사진제공\_최승언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반 고흐



청력을 잃고도 작곡했던 베토벤

“예술이 밥 먹여 주냐” 가난 속에서도 예술 활동에 전념했던 예술가들은 이런 말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술가 빈센트 반고흐, 에드바르 뭉크, 음악가 베토벤, 문호 도스토예프스키,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 등은 가난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먹고, 입고, 자는 일보다 예술을 삶의 중심에 놓고 활동했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류는 밥을 먹기보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고대 동굴 벽화, 고대인의 의식 무용, 중세의 성가, 현대의 음악과 문학까지 예술은 언제나 생존과 무관하게 인간의 삶에 존재해 왔다. 왜일까? 왜 인간은 끊임없이 남기고 표현하려 했을까? 왜 지금도 예술은 여전히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가?

인간이 예술을 하는 근본 이유는 표현하려는 본능, 더 정확하게는 존재의 의미를 밖으로 드러내려는 욕구에 있다.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 없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바깥으로 밀어내야 하는 존재다. 이 표현이 막히면 고통이 되고, 표현되면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예술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다.

알타미라나 라스코 동굴벽화를 보면 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그 그림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사냥 성공을 위한 주술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빛도 제대로 없는 동굴 깊은 곳에서 불을 밝히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벽에 그림을 남겼다.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하려 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알타미라 동굴벽화 구석기 시대의 예술활동을 대표한다



라스코 동굴벽화, 먹고 살기 위한 활동과 거리가 멀다

이들이 동굴에 그린 벽화는 인간의 내면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흔적이다. 두려움, 기쁨, 경외심, 세계에 대한 해석, 자연에 대한 감동...

이 모든 것이 그림으로 표출되었다. 인간은 태초부터 먹고사는 문제 이상의 질문, 즉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다루기 시작했다. 예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응답이었다.

중세 시대에도 예술은 삶의 중심에 있었다. 성경의 시편은 절망과 희망, 분노와 기쁨, 감사와 두려움이라는 인간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시로 표현한 대표적 예술이다. 시편 기자들은 전쟁 중에도, 도망자의 삶 속을 살아가는 민중과 자신들의 처지를 글로 표현했다. 그들의 시는 생존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존재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시

가의 형식을 빌어 희망을 발산했으며 고통하는 삶을 이겨내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매일같이 성가를 부르며 삶의 멜로디를 만들었다. 그들에게 노래는 신앙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내면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과 세계를 연결하는 예술이었다. 고통이 깊을수록, 노래는 더 간절한 울림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이다. 고통 속에서 진정한 삶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엔 진정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중세의 수도원은 유럽 중세 음악 예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현대에 이르러 예술은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중세 수도원의 음악예술



중세시대 음악 예술활동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술이 이제 ‘밥을 먹여주는’ 시대가 되었다. K-pop, 영화, 드라마, 미디어아트, 패션, 게임 산업 등 예술적 표현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산업적 성공 때문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예술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라는 본질적 이유가 있다.

K-pop이 세계적 현상이 된 이유는 기술이나 마케팅 때문만이 아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아티스트들은 불안, 희망, 자기 정체성, 청춘의 흔들림, 위로를 음악과 춤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 표현은 전 세계 청년들의 감정과 맞닿았고, 사람들은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했다. 그들이 K 팝의 소비자가 된 것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은 생존을 넘어서 의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 의미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다.“예술은 인간만이 할까 하는 점이다.

뉴스를 보면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고가에 경매된 사례도 있었고, 침팬지가 그린 그림이 미술 시장에서 거래된 적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동물도 예술행위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동물의 그림은 인간에 의해 훈련되어 명령을 이행한 결과에 가깝다. 색을 고르고 형태를 창조하며 ‘나라는 존재가 느끼는 세계’를 표출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동물이 그림을 그린 것은 분명하지만 동물이 주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그린 것은 아니다.

반면 인간의 예술은 단순한 본능적 행동을 넘어선다. 인간은 상상하고, 의미를 만들고, 감정을 해석하고, 자기 고뇌를 외부로 투



코끼리가 그리는 그림

영한다. 예술은 감정의 결과이며, 그 감정을 형식을 빌어 표현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다. 그림을 그린 행위나 그 결과가 아니라 ‘왜 그렸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예술은 인간만의 영역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점에서 우리는 AI가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술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영역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이미지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글을 쓰는 시대가 왔다. 기계도 예술을 하는 듯한 시대가 오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AI는 예술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AI가 예술의 영역에서 인간을 도울 수는 있어도 스스로의 감정을 갖는 존재가 아니기에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AI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며, 고뇌하지도 않는다. 고뇌가 없으니 주체적으로 표현할 이유도 없다. 표현의 이유가 없으니 AI가 작업한 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더라도 예술이 아니다.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내부 세계를 외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상상력, 기억, 감정, 고통, 희망, 절망, 질문... 이런 것들이 모여 작품이 된다. 그렇기에 예술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인간의 마지막 자산이자, 인간만의 존재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예술이 밥 먹여 주나?” 그러나 역사는 묻는다.

“예술이 없는데 그게 인간인가?” 태초의 동굴벽화가 그 사실을 증명했다. 시편의 노래가 그 사실을 전했다. 중세의 성가가 그것을 드러냈다. 지금은 현대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가 다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술은 사치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밥은 육신을 살리고, 예술은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혼과 존재를 살린다. 밥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예술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예술은 가장 오래된 언어이며, AI 시대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표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 말없는 사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물 앞에 멈춰 선다는 것

글, 사진제공\_여상현(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교수, 사진예술대학 아카데미 지도강사)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내려올 때, 나는 문득 정물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말 없는 사물들,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 그것들은 왜 그토록 오래도록 예술가들을 끌어당겨 왔을까?  
고대의 장식 벽화부터 르네상스의 정물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스마트폰 속 Instagram 피드에 올라온 커피잔까지.. 정물은 시대를 가로지르며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무생물이라는 공통된 조건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담고, 이야기를 만들고, 세계를 조직합니다.

## 정물은 왜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사진을 막 시작했을 때, 나는 누구나 그렇듯 과일 바구니부터 찍었다. 접시에 담긴 사과와 포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 다. 내가 만든 구도, 내가 선택한 빛, 내가 의도한 초점이 사진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진가 Ben Long은 "정물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형태의 예술이고, 시선을 어떻게 프레임 안으로 안내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 말에 나는 동의합니다. 정물은 단순히 보여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 빛, 형태, 그리고 시선의 흐름

정물 사진을 찍는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진가 자신의 세계관을 어떻게 배열하고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탐구

입니다. 조명을 조금 옮기는 것만으로도 컵의 곡선이 강조되거나, 바닥의 질감이 새롭게 보입니다. 삼각대의 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어쩌면 그릇 속 복숭아가 풍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종종 수동 초점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자동 초점은 너무 똑똑해서, 사물에 내 시선을 대신 맞춰줍니다. 하지만 정물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느긋하게 나만의 초점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색입니다. 초점 너머로 흐려지는 부분조차 이미지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인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서 세트장의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사진 1〉

예시사진 1을 보시면 흰색의 큰 배경을 사용하여 정물사진의 기본 아이템인 과일바구니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3장의 사진을 보시면서 3가지 조명의 방향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사진은 스트로보 조명에 소프트박스 착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예시사진 2)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떨어지는 그림자를 보실수 있는 측광의 조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예시사진 3)은 우측 뒤쪽에서 역광의 조명을 사용하여 그림자가 좌측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예시사진 4)은 순광의 조명으로 카메라가 위치하여 있는 위치에서 조명을 주어 그림자가 바구니 뒤쪽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잠시 세가지 타입의 사진들을 심도 있게 보면서 바구니에 떨어지는 그림자 방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진 2〉



〈예시사진 3〉



〈예시사진 4〉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의 감성의 눈으로 세가지 타입의 사진들 중에 어떤 사진들이 가장 좋은 사진들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조명)의 방향과 그림자의 길이는 촬영할 때의 시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 작가가 볼 때는 측광의 조명과 역광의 조명을 선호합니다. 순광의 조명은 제품의 티테일은 좋으나 감성이 없는 사진처럼 보여 특별히 기록용 사진을 원할때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조명 방향입니다.

## 구도는 선택의 기록

정물 사진의 구도는 사진가의 윤리와 닮아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우는가.  
그 선택의 집합이 한 장의 이미지가 됩니다. 나는 프레임 안에서 사소한 것들을 옮겨봅니다.  
컵을 조금 뒤로 밀거나, 나뭇잎을 2cm 옆으로 옮깁니다.  
그 사소한 차이가 사진의 온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빛이 정면에서 올 때와 옆에서 올 때,사물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진은 결국 빛의 윤리학입니다.





〈예시사진 5〉



〈예시사진 6〉



〈예시사진 7〉

위의 3가지 사진들은 같은 과일 바구니이지만 붉은 배경지의 변화로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였습니다.  
실제 스튜디오 촬영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진 8〉

### 정물은 훈련의 도구이자, 상상의 무대다

정물 사진은 입문자에게는 조작 가능한 완벽한 훈련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연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사진의 본질을 되문게 만듭니다. 구도, 빛, 질감, 심도. 어느 하나

도 대충 넘길 수 없습니다.  
사진작가 Hannah Concannon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특정한 빛이 장미와 대리석에서 각각 어떻게 반응할 지, 그것은 실제로 촬영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정물은 실험의 연속이며, 그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나 역시 오래된 벨벳 천을 배경에 두고 사물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재질 위에 도자기 하나를 올려두니, 그것이 무언가 송고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컵 하나가, 마치 기억을 담고 있는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 정물은 우리 곁에 있다

요즘은 정물이 거리에도 있다. 길가에 버려진 신발 한 짝, 책상에 놓인 흔들리는 커피잔, 여행지에서 모아온 기차표와 동전들.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정물의 후보들입니다. 반드시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세팅하지 않아도, 정물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사진가 Alex Tan은 이렇게 말했다. “정물은 나만의 시선과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보이게 만들 때, 거기서 예술이 시작됩니다.”



〈예시사진 9〉  
위사진은 아웃포커스를 사용한 사진입니다.



〈예시사진 10〉  
위사진은 팬포커스를 사용한 사진입니다.



〈예시사진 11〉  
위사진은 전체적인 스튜디오 세팅장면입니다.

### 끝내주는 정물 사진은 완벽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정물 사진에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배경은 깨끗해야 하고, 배치는 정돈되어야 하며, 조명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방식입니다. 하지만 나는 때로는 흐트러진 식탁보나 떨어진 꽃잎 한 장이 더 강렬한 감정을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Alex Tan은 정물 한 컷에 “한두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1시간 안에 괜찮은 사진을 얻고 멈추지만, 그 다음 20%의 결과물은 그 시간을 넘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물은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합니다. 멈추고, 관찰하고, 구성하고, 기다리는 일.



〈예시사진 12〉  
위사진은 좌측에서 반사판 효과를 주기위해 우드락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시사진 13〉  
위사진은 좌측에서 반사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시사진 14〉  
위사진은 스튜디오 전경사진입니다.



# 2025년 제5차 이사회 결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3명, 출석 55명, 위임 19명

출 석 : 최차열, 선종백, 백만중,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삼택, 김서윤, 김영록, 김옥진, 김윤정, 김재엽, 김정금, 김춘도,  
김화연, 도성만, 박만석, 박석관, 박승호, 박해섭, 서진종, 손석윤,  
신경애, 우기근, 우숙자, 윤민식, 윤보상, 윤판문, 이내교, 이막래,  
이명수, 이상영, 이성록, 이연숙, 이재수, 이종석,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전태만, 정연수, 정재문, 정종관, 정홍선, 최성용, 최연근,  
최암순, 한용상, 한재원, 황의출

위 임 : 유수찬 이사장, 김동철, 김양호, 김철수, 문금영, 박건태, 박경서,  
백승의, 설병갑, 손병효, 송인호, 오만태, 오명숙, 이윤순, 이창훈,  
장창근, 조월신, 한희동, 하봉걸

참 석 : 이경래, 이덕만, 공병철 감사

1. 성 원 보 고 - 총원 83명 중 출석 55명, 위임 19명으로 성원

2. 개회인사말 - 최차열 부이사장

3. 전차 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정재문, 임성동 이사 / 경과보고 : 김형준 사무처장

## 【경과보고】

2025. 10. 16. ~ 20. 베이징 사진주간 한국특별전

2025. 11. 07. ~ 08. 전국 지회지부장단 및 임원 워크숍

2025. 11. 10. 2025 장학생 선발 심의

## 4. 안건

### 1) 장기회비 미납자 정권 처리의 건

- 입회 30년차를 초과한 회원들은 정권 처리를 보류할 것을 의결하고,  
12월 중 정권자 처리는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2) 제64회 한국사진문화상, 우수회원상 개최 및 심의위원 추천의 건

- 개최를 승인하고 심의위원 추천은 이사장에게 위임함.

### 3) 제63회 전국회원작품지상전 개최 및 심사위원 추천의 건

- 개최를 승인하고 심사위원 추천은 이사장에게 위임함.

## 제63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b>접수마감</b> 2026년 1월 16일(금) (도착분) <b>작품내용</b> 8"x10"(자유작) <b>출품수</b> 1인 2점 이내	<b>출품요령</b>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b>특전</b> 수상자는 2026년 PASK AWARDS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 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b>기타사항</b>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 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자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 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 수상자는 pask awards 기간 개최되는 전시에 수상작품 액자를 출품해야 함
<b>참가자격</b>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b>시상</b>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 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 ② 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 선정	
<b>접수기간</b> 2026년 1월 16일(금) (도착분) <b>출품료</b>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증정) - 작품집은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b>파일접수</b> 이메일 koreapask@daum.net ※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 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4) 규정변경의 건

#### ■ 도 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 승인

개정 전	개정 후
<b>제26조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약)</b> 지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공고 일 기준으로 정회원으로서 입회 7년차 이상인자로 선거 공고일 현재 도(道)내 각 지부에 3년 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단,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다 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021.11.27 개정)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지 아니한 자 ② 지회장의 임기에 관하여 변경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지회 장의 임기가 종료된 자는 지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2021.11.27. 개정) ③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은자가 협회로부터 사면이 되거나 또는 징계기간이 도과되어 복권이 결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21.02.18. 개정) ④ 연회비를 미납한 자(2019.07.25 개정)	<b>제26조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약)</b> 지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정회원으로서 <b>입회 10년차 이상 인자</b> 로 선거 공고일 현재 도(道)내 각 지부에 3년 이상 소속 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단,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 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025.11.27. 개정)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b>사유 : 지부를 관리하는 도지회장의 자격요건 강화</b>	

## 제64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추천 공고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및 단체의 업적을 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문화상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64회 한국사  
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분야

- 공로상 : 20년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  
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작품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을 고려한다.
- 출판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문(단행  
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  
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  
대한 자

-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
- 회원표창 : 지회·지부에서 추천하며 한 해 동안 지회·지부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지대한자 (지회·지부장, 임원 추천서 필수)

### 마감일

2026년 1월 16일(금) 협회 도착분에 한함

### 진행절차

- 추천서에 대하여 한국사진문화상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
- 선정된 수상자는 2026 PASK AWARDS에서 시상 예정







산악사진분과위원회 가을 출사

# 안개와 단풍 어우러진 봉화 청량산서 진행

글, 사진제공\_이성길(산악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박광미



©방성공\_청량산



©김지무

2025년 산악사진분과위원회 3분기 가을 출사를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진행되었다. 먼 길임에도 함께한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청량산은 '작은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기암괴석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정상에 오르면 하늘다리가 반기고, 사계절 내내 맑고 시원한 기운이 휩싸인다. 특히 가을이면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하늘빛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첫날은 축융봉, 둘째 날은 청량사 하늘다리와 연정봉 일대를 중심으로 촬영하였다. 산 중턱의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천년 고찰로, 절벽 위에 걸쳐 있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단풍 터널을 따라 오르는 길과 계곡의 물소리는 마음을 정화시킨다.

주변에는 청량정사, 김생굴, 경일봉 전망대 등 다양한 명소가 있다. 특히 경일봉에서는 청량사 전경과 봉화 들판, 낙동강의 굽이치는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청량산은 빛과 색의 조화를 담기 좋은 사진 명소이다. 아침에는 안개와 단풍이 어우러진 몽환적인 분위기를,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이 절벽과 숲을 감싸 입체감을 더해준다.

자연의 순수함과 고찰의 고요함이 공존하는 청량산은 단순한 산행지를 넘어 마음을 비우고 사색하기 좋은 곳이다.



©강희찬



©이성길



©박곡희



©홍종복

## 회비납부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 지회,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 연회비 10만원 본 협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회비 문의 : 재무팀 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로 제작)
-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대 누드사진분과 위원회 가을 촬영회

글, 사진제공\_김정호(누드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누드사진분과위원회 단체기념촬영



가을촬영회 모델연출 후 열정적으로 촬영하는 누드사진분과위원회 위원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0대 누드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지우)는 2025년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파주시 대원3리 소재 대원물류에서 최복수본부이사. 김승수 30대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제30대 누드사진분과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의 사진작가들이 참석 한 가운데 고양 파주 가을 누드 촬영회를 갖었다.

누드모델과 김승수보도사진분과 위원장이 소속한 인천라이더모임 회원, 오토바이와 누드모델 그리고 건공과 함께 하였으며 컨테이너 창고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 멋진 연출이 되어 좋은 작품을 만들수 있었다.

이날 정지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장소와 모터사이클과 건공이 누드모델과 잘 어우러져 새로운 연출의 누드촬영회에 참석하신 제30대 누드사진분과위원회 위원들 창원. 진주. 대구. 남원. 전주. 인천 등 전국의 사진작가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냈다. 허경삼 지도위원의 지도 열정은 참여한 사진작가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디지털아트분과위원회 세미나 및 촬영회



지난 11월 1일 디지털아트분과위원회(위원장 윤영녀) 세미나 및 촬영회가 전북 익산 빛담기획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 내빈으로 최복수 이사, 정지우 누드사진분과위원장, 광주지역 동호회 회장들과 다수의 디지털아트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오전과 오후로 진행하였는데 오전에는 파인아트 이론강의를 이경택 길 파인아트 대표가 오늘날 '파인아트사진'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열강을 하였다.

'파인아트'란 보기좋은 사진이 아니라 미술(art)를 뜻하며 단순히 풍경을 담거나, 인물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의 한 형태라 하였으며 디지털시대의 작가들은 포토샵과 같은 디지털 툴을 이용해 색, 구조, 형태를 조정하고 이미지를 여러장 겹치거나 삭제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단순한 보정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 창작(art work)으로 작가가 느끼는 감정과 기억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오늘날의 파인아트 사진은 보이는것보다 생각하는 이미지, 즉 기록의 사진에서 미술로서의 사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열강을 하였다.

또한 오후에는 실내 조명연출 촬영으로 최덕환 강사 주도하에, 도자기만들기, 콘트라베이스 연주, 카메라. 영상 수리공 등 여러 모델들이 교대로 연출을 하며 참석한 회원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촬영한 사진들을 파인아트화하여 본인만의 특색있는 사진으로 창조되길 기대해 본다.

http://dongilframe.alltheway.kr/

**동일액자**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 유수찬 이사장 “일반공모전 시상금 없애야” 2025 전국 임원지회지부장단 회의서 언급

글 사진 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온양관광호텔 본관 앞 계단에서 2025 전국 임원지회지부장단 회의 후 단체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전국 임원지회지부장단에게 강의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회장장 전경 모습

본부감사, 조건수, 홍창일, 강부만 고문.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장, 운영자문위원과 홍보위원들.”

유수찬 이사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12월 4일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사진축전에 많은 관람객이 와야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사진진흥법에 관한 공청회를 했는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채워주셨고 잘했습니다. 우리 협회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초청장도 왔습니다. 자랑스럽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프로사진가협회가 함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반대의견으로 불편했습니다. 공모전 상금을 없

애라. 명예로 가야 된다. 우리 협회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격의 없이 듣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건수 고문이 인사말을 했다. “우리는 참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겁니다.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또 새롭게 변신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가 좀 더 변화하면서 새롭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신현하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택수 상임이사가 제반 규정에 관해서 강의하고 있다.



김형준 사무처장이 시 이슈와 저작권 이해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신현하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협회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모전의 시상금에 관해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쇄신해야 합니다. 미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김형준 사무처장이 “시와 저작권의 이해”에 관해서 강의했다. “서론-인공지능의 본질, 학습데이터-시의 성장 연료, 저작권 이슈-공정이용과 TDM의 경계, 보상-명작보다 데이터의 양이 중요해지는 시대, 대응-골든타임을 마주한 우리의 선택, (1) 창작자 입장의 실질적 구분, (2) 사진 장르의 특수성, (3) 협회 대응 방안, (4) 정책적 제언, (5) 협조 요청, 결론-변화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등을 강의했다.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유수찬 이사장이 “한국 사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논의”에 관해서 강의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촬영대회도 많이 풀었으니 적은 인원이라도 촬영대회 하라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기 바랍니다. 63년에 만든 사협 배지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12월 4일에 실시하는 대한민국 사진축전에 지부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사진공모전을 제외한 일반 공모전의 시상금을 없애고 명예로 하길 바랍니다. 장학금에 많이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20분까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운영자문위원회 신현하 위원장의 주제로 회의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회 협회 운영 개선 및 장학재단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공모전 운영 개선 방향 논의 : 운영자문위원회는 협회 주관 공모전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상금 및 현금성 상품 수여를 폐지하는 방향의 원칙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현금성 혜택 중심의 공모전 운영이 본래의 예술적 취지와 순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명예 중심의 수상 체계와 전시·지원형 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 장학재단 설립 관련 논의 : 협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사진예술장학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 재단은 사진예술 인재 육성과 청년 작가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며, 협회의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은 이를 통해 협회가 공익적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향후 계획 : 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의견과 소수 의견까지 함께 명시해서 협회에 전달할 예정, 추후 지속 가능한 협회 운영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배택수 상임이사가 규정을 강의했다. “입회 30년 이상 80세 이상인 회원 회비 면제해 안 내시는 분은 선거권 안 주면 됩니다. 징계는 아니고, 자격 제한입니다. 지회의 대의원제에서 20명 이상이면 대의원이 3명으로 올리면 됩니다. 시도지회 사무국장이 일반사진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다. 일반공모전에서 파일로 접수할 수 없다. 간사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는 해임할 수 있다. 위임장 내고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도 해임 가능하다.

중임과 연임, 지부 이적에 관한 규정, 복권, 운영세칙, 심사자격자, 부지부장은 회원 20명 이하 1명, 20명 이상 100명까지 2명, 100명 이상 3명 둘 수 있다. 수석 부지부장 둘 수 있다. 전시 관람 점수, 10회 이상 3점, 공모전 심사 시 감독관은 수상자 전 작품에 사인한다. 촬영지도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습 위주로 지도할 수 있다. 점수 부여, 심사 자격자는 보수교육 받아야 한다.”

오후 5시 30분에 호텔 앞 계단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오후 6시부터 크리스탈볼룸에서 뷔페식으로 만찬을 했다.

지난 8일(토) 오전 7시 30분부터 1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9시 30분부터 크리스탈볼룸에서 주요 변경 규정 및 협회 업무 처리를 교육했다.

유수찬 이사장이 장학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협회 이미지 제고에 걸림돌을 없애겠다. 원로회원 사협에 애착심이 매우 강한데 회비 문제로 어려워한다. 회비 면제자 협회에서 총회 거쳐 지원해야겠다. 건의 사항 공론화하겠다. 협회가 변하고 있다.

질문 건의 사항에서 부산지회 강종관 지회장은 “입회 30년 이상, 80세 이상인 자 본부 규정대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부 회비 5만 원 본부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광주지회 윤판문 지회장은 “포도삽 비용을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 자격자가 되면 공모전 출품할 수 있는지요?”라고 질의했다.

오전 10시 35분, 운영자문위원회 신현하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공모전 상금 없애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오전 10시 40분에 2025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 임원지회지부장단 회의를 마쳤다.



## 사진촬영지도 및 교육 전문성 강화·위원 간 교류 확대·차세대 리더 육성 기반 마련 촬영지도위원회 제6기 발대식 및 정기 워크숍 성료

글\_강돈영(본부이사, 6기 촬영지도위원회 회장) 사진\_오건호(보도사진분과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위원)



6기 촬영지도위원회 발대식에 참여 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6기 촬영지도위원회(회장 강돈영)는 지난 2025년 9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 학생회 및 야외 일대에서 제6기 발대식 및 정기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촬영지도위원 및 부지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소통과 연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숍 1일차(9월 27일)는 ▲사진인의 길에 대한 철학적 조망(유수찬 이사장), ▲촬영지도위원을 위한 현대사진 강의(백택수 상임이사), ▲촬영지도의 기본자세와 예절을 주제로 한 ‘지도 에티켓’ 교육(이성록 위원장)등 실천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 발대식이 거행되었으며, 유수찬 이사장, 김시묵 부이사장, 이성록 촬영지도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6기 촬영지도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발대식 이후에는 ▲제6기 총회, ▲준비사항 설명(이승주 부위원장), ▲Q&A 및 토론 순서가 이어졌으며, 밤늦게까지 자유로운 다과와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위원 간 유대감을 다졌다. 이번 6기 위원회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소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역별 체계를 위해 강돈영 회장을 중심으로 윤

영설 부회장(광주), 윤영돈 부회장(원주), 정희하 부위원장(영천), 조영민 부회장(인천), 조인환 부회장(관악)이 함께 각 권역을 대표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축사를 하는 이성록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본부 이사)



강돈영 6기 촬영지도위원회 회장(사진 오른쪽)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는 유수찬 이사장

부회장단 구성은 향후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가 전국 각지의 교육 현장과 더 밀접히 연결되고, 지역 기반의 촬영회 및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밀도 있는 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돈영 제6기 회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촬영지도위원회는 단순한 촬영대회지도를 넘어 사진 예술을 통해 사람과 지역을 잇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촬영지도위원 기수선배님의 헌신과 후배 위원들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6기 촬영지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촬영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 내실화, 촬영회 및 실습 중심의 실전 경험 확대, 부지도위원 참여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일차(9월 28일)에는 실습 중심의 야외 교육이 진행되어, 촬영지도의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 이루어졌다. 이승주 부위원장의 진행 아래 모델연출 및 소품과에 대한 활용방법과 다년간의 촬영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지도 능력을 지도하고, 촬영 지도 기법을 공유했다. 실습 후에는 간단한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5년 11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9월말) : 129,125,862  
**계 : 1,239,015,548(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39,600,000 (3,355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⑤ 2021년 계 : 27,700,000  
⑥ 2022년 계 : 32,200,000  
⑦ 2023년 계 : 16,900,000  
⑧ 2024년 계 : 25,900,000  
⑨ 2025년 계 : 30,500,000  
▷ 2025년01월(108명) : 10,800,000  
▷ 2025년03월(56명) : 5,600,000  
▷ 2025년05월(27명) : 2,700,000

▷ 2025년07월(33명) : 3,300,000  
▷ 2025년09월(40명) : 4,000,000  
▷ 2025년11월(41명) : 4,100,000

○기타 계 : 101,414,082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55,987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47,769,875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39,015,548 (a-b)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재규(증평) 지부장 영애혼

2025년 11월 2일(일) 오후1시50분 웨딩그룹 위더스 안양9층 메리엘 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백승의(안양) 본부이사 모친별세

별세 2025년 11월 22일 발인 2025년 11월 24일

### 신비의섬제주

제주도 촬영지도 권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촬영 지도안내**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지도 촬영시간 1일 8~10시간 기준**  
**1명~3명 지도비 20만 원 삼각대 무료대여 (단체는 별도문의)**  
**“개인전시를 위한 (포토스토리)1년 작업 촬영지도 별도문의”**



축하합니다  
(11월 입회자)



박영화(광진구, 정)



송수현(광진구, 정)



옥정숙(광진구, 정)



한지영(서초구, 정)



조철형(은평구, 정)



배중현(대구, 준)



박영희(대전, 정)



배명신(대전, 정)



염경희(대전, 정)



이우만(대전, 정)



조인현(대전, 정)



주홍은(대전, 정)



김희구(부천, 정)



윤정애(부천, 준)



김승덕(포천, 정)



장선옥(포천, 정)



장성수(포천, 정)



권오준(구미, 준)



남인숙(구미, 정)



문경탈(구미, 정)



김군자(밀양, 정)



설혜심(밀양, 정)



손순애(밀양, 정)



이성희(밀양, 정)



김태희(밀양, 정)



정영애(양산, 준)



정영자(양산, 정)



최영욱(양산, 정)



하홍철(창녕, 준)



강승원(창원, 정)



김경순(창원, 정)



김서현(창원, 준)



최성수(창원, 정)



김교선(청주, 정)



김복희(청주, 정)



김은배(청주, 준)



유재희(청주, 준)



이용희(청주, 정)



최상호(청주, 준)



임서하(서산, 정)



손인호(아산, 정)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대한민국 사진작가협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양천우체국

07995

30만원으로  
전시초대도, 사진작품도 게재

2023. 12. 06. PM.15:00

I · N · V · I · T · E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 미묘한 흐름 Subtly Flow

김민주 개인전 & 구미아트페어 초대전



### 1차전시

전시일시 2025년 12월 4일(목) ~ 12월 8일(월)

전시장소 구미코 2층 특별전시장

주최·주관 구미아트페어 조직위원회

전시작가 김민주(구미, 010-3337-0764)

### 2차전시

전시일시 2025년 12월 9일(화) ~ 2026년 2월 28일(토)

전시장소 아뜰리에21갤러리

나는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파도, 구름, 별, 꽃, 바람 등 끊임없이 변화하며 흐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묘한 움직임을 나의 포토그램(photo-gram)적 소재로 삼았다. <중략>

‘미묘한 흐름(Subtly flow)’이라는 이번 전시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리듬과 흔적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된 감각과 기억을 일깨우고자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 뿌리깊은 고독 Deeply Rooted Solit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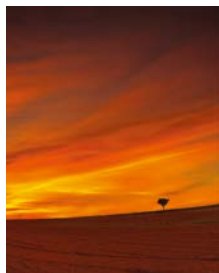
송인호 개인전 3rd Solo Exhibition

왜 홀로선 나무인가?

홀로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무는 환경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주어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살아낸다. 그 자체가 오직 자신만의 무게와 침묵을 지켜 왔다는 굳건한 증거인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온전한 자기로 서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있고, 존재의 근원적 외로움에 대한 탐구가 작품에 녹아 있다. <중략>

“뿌리깊은 고독”은 개인적인 기록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람객 모두의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 시대의 모든 고독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그 고독 속에서 발견하게 될 놀라운 힘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당신의 고독이, 곧 당신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 12월 21일(일)

전시장소 대전예술가의 집 제5,6전시실

개전식 2025년 12월 17일(수) 15:00

전시작가 송인호(010-8813-6666)

## 빛이 남긴 기록 – 새로운 생명

정인호 개인전



바다는 언제나 흐르고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멈춘 시간을 본다. 이 작업은 ‘장노출의 철학’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다시 탐구한 결과물이다.

AI는 나에게 있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번역하는 또 하나의 언어였다. 그 언어를 빌려, 나는 인간이 잊어버린 시간의 결을 다시 꺼내고자 했다. <중략>

결국, 이 작업은 기술의 탐구가 아니라 ‘기억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다. 사라진 풍경은 AI의 화면 속에서 다시 살아났고,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기억의 바다’는 그렇게 다시 깨어났다. 멈춘 시간의 미학은, 사라짐의 고요 속에서 완성된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1월 28일(수) ~ 2월 3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1F 2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6,

홍익빌딩 TEL.02-730-5454)

전시작가 정인호(010-3621-6272)



## 길위에서

강위원갤러리 개관 기념전



전시일시 2025년 12월 6일(토) ~ 2026년 5월 28일(목)

전시장소 강위원갤러리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1길 18-10)

초대일시 2025년 12월 6일(토) 14:00

전시시간 토, 일요일 10:00~18:00 /

평일 예약(010-2725-0727)

초기 사진들을 정리하여 젤라틴 실버프린트로 인화했다.

촬영 당시의 시대적 풍경들은 모두가 사라졌고 사진 속에서만 남아있다.

50여 년간의 사진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살아온 길을 회상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悲感素月  
양재문 초대전



1부 자유관람

2025년 12월 15일(월) ~ 12월 20일(토) 12:00~18:00

2부 예약관람

2025년 12월 22일(월) ~ 12월 30일(화)

사전예약 010-9742-4647

전시장소 HNH 갤러리(서울 중구 수표로1 2F)

〈비감소월〉은 작가의 대표 연작 〈비천몽(飛天夢)〉 이후 10여 년 만에 신명스러운 빛을 형상화하여 공개하는 새로운 작업으로, 천상을 향하던 신명의 춤이 달빛의 고요 속으로 내려앉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품은 하늘을 향한 상승의 에너지에서 명상적 침잠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궤적을 담고 있다. 〈중략〉

이번 전시는 ‘춤의 에너지에서 명상의 빛으로’ 이어지는 양재문 작가의 예술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화려한 표현 대신 절제된 빛의 언어로 감정의 울림을 전하는 이 전시는, 현대인이 잊고 지낸 ‘고요 속의 사유’를 되짚게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Gallery 투고 안내

Gallery에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에서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전시를 소개하여 직접 관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 전시회는 본 협회 회원이라면 무료로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Gallery 사진전시회 올리는 방법

1. 대표작 1~2점, 간략한 작가노트 A4 1/3분량.
2. 전시제목, 전시장소, 전시날짜, 전시작가 순으로 작가노트에 삽입하여 제출요망.
3. 데이터 올리는 곳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ask / 패스워드 kask - 무료 갤러리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로 무료 갤러리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4. 업로딩 일자는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5.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게재 문의. 02-2655-3131

Adieu 2025



2025년 1월

- 03 Headnote  
새로운 도약의 원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 28 전시광고  
Photo Art Korea展  
Time Story - 사진 속 시간 이야기
- 32 전시광고  
아들리에21 개관 기념사진전 Light & Moment #3  
흰 밤을 지새다 - 김민주(구미)
- 36 특집  
01-개전식  
02-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및 청소년사진제 시상식  
03-장학금 수여  
04-특별전  
05-이모저모
- 62 자상전 1  
어둠 너머 새벽 빛 알리는 신성한 새  
꼬꼬의 화려한 자태 - 최차열(서산)
- 66 자상전 2  
태어난 그대로의 알몸 신에 바치노니  
나는 '나기사두'다 - 박경서, 박용득, 이내교
- 72 Photo Essay 01  
비현실적 공간에서, 생명이여 호흡하라  
Dream of House - 이석준(송파구)
- 76 자상전 3  
시궁창 악취 속 하얀 미소 피어난다  
케나 빈민촌 키베라 - 이정근(전주)
- 80 Photo Essay 02  
조물주의 그림일까, 자연의 선물일까  
월출산 암봉능선 - 박국희(여수)
- 84 Review & Preview  
종이책 디자인의 전설을 만나다  
슈타이틀 북컬처 : 매직 온 페이퍼 - 김재훈  
사진강좌
- 90 Photo Theory  
툰 호수 바라보며 창작 아이디어 얻는다  
파라디슬리 아티스트 레지던시 - 김정현
- 94 Travel destination  
허물 벗고 사는 생명력 VS 맹독 가진 죽음의 신  
두 얼굴의 뱀 - 최승언  
협회소식
- 98 Society News / Member Plaza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108 Gallery  
Time Story - 사진 속의 시간 이야기 외



2025년 2월

- 03 Headnote  
을사년의 시작을 맞이하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선종백
- 30 전시광고  
홍강희 사진전  
'돌의 흔적' A trace of stone - 홍강희(수원)
- 34 전시광고  
포성 뱌어넌 겹데기, 평화를 꿈꾼다  
매향리, 그 후 - 임삼진(수원)
- 40 전시광고  
특별한 사진,  
Dream Photo-새로운 서사 - 조주은(수원)
- 44 Photo Essay 01  
숨 가쁜 일상 잊고 지혜의 보고 속으로...  
빛과 시간의 연대기 - 윤홍선(동작구)
- 48 자상전 1  
하늘 땅 맞닿은 그곳으로 '한걸음 또 한걸음'  
카메라 여정 旅程 - 김교현(파주)
- 52 자상전 2  
푸른 바람 품은 하늘 아래 동지들  
침 in 침 - 정일경(대구)
- 56 Photo Essay 02  
너와 나 서로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다  
경계를 넘어, 공존의 미학 - 강돈영(의정부)
- 60 Photo Essay 03  
URBAN PHOTO 展  
우리 동네 기록사진 - 박근우(광주)
- 64 Review & Preview  
우에다 쇼지 : 모래극장  
- 김재훈  
사진강좌
- 70 Travel destination  
작품 참 좋은 데.. 저작권은 누가 갖나  
AI 시대 예술이 사는 법 - 최승언  
협회소식
- 74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103 Gallery  
임삼진 사진전 외



2025년 3월

- 03 Headnote  
선진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만중
- 08 특집  
유수찬 이사장 '협회위상 높혀 나갈것'  
제64차 정기총회서 사진진흥법 제정 등 협회 3대 과제 발표
- 12 특집  
제63회 한국사진 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제62회 전국회원작품 자상전 우수 작품상
- 50 전시광고  
흑백사진가 백상현 개인전  
빛으로 그린 공간, 현대건축 - 백상현(안산)
- 54 전시광고  
황진이 초대전  
흐름 속에 머문 것들 - 황진이(군포)
- 58 전시광고  
박성혁 개인전  
바다, 시간을 담다 4 - 박성혁(대구)
- 62 Photo Essay 01  
설원 질주하는 울란부통의 백마처럼...  
영하 25℃의 휴식 - 김부연(중구)
- 66 자상전 1  
여자만(汝自灣) 동경 - 김동욱(순천)
- 70 자상전 2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와 교감할 때  
내 마음 in 자연 - 오금희(서초)
- 74 Photo Essay 02  
발리카삭 작은 섬, 맑은 바다 수중 낙원으로...  
형형색색 다이빙 투어 - 김형주(대백)
- 78 작가탐방  
시간의 본질은 우리를 빠져나간다.  
므두셀라 : Methuselah - 박경태(서울)
- 82 Review & Preview  
폴리처상 사진전  
Shooting the Pulitzer - 김재훈
- 88 Photo Theory  
거울왕국 열음 땅, 밤 하늘엔 오로라  
아이슬란드 Photo travel - 김정현  
사진강좌
- 92 Travel destination  
AI, '사람과 협업' 감동 선물한다  
예술 민주화 시대 '성큼' - 최승언  
협회소식
- 96 Society News / Member Plaza  
제64차 정기총회 결과,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업계소식
- 106 Gallery  
박성혁 개인전 외





- 2025년 4월**  
03 Headnote  
사진은 마음을 담는 예술입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항룡  
08 특집 제58회 단종문화제 25일 개막  
‘국정재현’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한다  
12 특집 영월의 랜드마크, 동강사진 박물관  
한국사진 흐름 ‘한눈에’ 추억과 감동 ‘듬뿍’  
18 특별기고  
영구발전기금 25년의 궤적과 새로운 모색 - 양경창(용산구)  
40 전시광고  
오방색 품은 상생과 겸손의 나무 전채영 초대전  
보리수展(五方色) - 전채영(의왕)  
44 전시광고  
기후변화 담아낸 정순교 사진전  
시의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 - 정순교(전주)  
48 전시광고  
욕심버린 비움의 지혜로 빛나다. 고영금 개인전  
심연의 향이라 - 고영금(양천구)  
52 전시광고  
아련한 추억엔 어머니 향한 그리움이... 윤영식 초대전  
미선 尾扇- 윤영식(과산)  
56 전시광고  
용광로보다 뜨거운 철의 야생작가 윤순영 PosART 기록전  
그해 겨울 그들이 왔다. 눈꽃으로 - 윤순영(김포)  
60 기사광고  
김정현 교수와 함께하는 아이슬란드 여름 창작 여행 - 김정현  
64 자상전 1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 맞이한 ‘환희’  
치유의 땅 아이슬란드 - 조영수(이천)  
68 Photo Essay 01  
핸드헬드 사진기법 ‘handheld photography’  
내 안의 꿈 - 채움 그리고 비움 - 신경애(춘천)  
72 Photo Essay 02  
석이지 않아도 함께 한다 ‘和而不同’  
Water & Oil 물과 기름 - 이젤마(워싱턴)  
76 자상전 2  
다시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생명력  
연(蓮)의 겨울나기 - 이진환(증평)  
80 Review & Preview  
NÖTAN : 필립 퍼키스의 마지막 사진 작업전 - 김재훈  
86 Photo Theory  
단순의 미학, 역광 활용해 촬영하라  
음식 사진 찍는 법 - 여상현  
90 Travel destination  
암울한 시대마다 희망 심은 예언서  
정감록과 정도경 - 최승언  
94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111 Gallery 윤순영 PosART 기록전 외



- 2025년 5월**  
03 Headnote  
사진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06 특집 사진진흥법 공청회 후기  
사진진흥법 공청회 - 발제 홍현철  
14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현장스케치-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대상 이항룡 작가 ‘그들만의 버스킹’  
운영위원평 - 한국 사진예술의 희망찬 미래 ‘확인’ - 이경래  
심사위원평 -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를 마치고  
- 김양평  
인터뷰 - 낯선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니 ‘큰 상’  
- 대상 수상자 이항룡 작가  
66 전시광고  
[김용구 사진전] 흘러갈 것인가 vs 멈추어 설 것인가  
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 김용구(안동)  
70 전시광고  
[김중구 개인전] 수 많은 사연 품은 ‘순간 포착’ 풍경  
기억 속의 공간라 - 김중구(부산)  
74 전시광고  
[박덕률 개인전] 단집 색채, 문살 무늬, 불단 관념까지  
절집은 모든 게 꽃이다 - 박덕률(창원)  
78 전시광고  
[이강석 개인전] 열 출판기념회! 30년 사진 여정,  
그 미학을 따라서 통영, 그 바람의 선율 - 이강석(통영)  
82 Photo Essay 01  
바다없는 블랙홀같이 팽창하는 우주처럼...  
꽃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시간 - 장창근(속초)  
86 자상전 1  
무른 산 빛 깨치고 갈대 밭 흰 빛 속으로  
훈(魂) - 이정휘(수원)  
90 Photo Essay 02  
얼굴 감추어도 원초적 본성 ‘그대로’  
페르소나 - 박영숙(대구)  
94 자상전 2  
[우아미 사진연구회] 박순적, 송진숙, 양인선, 오문자, 이화순  
5人 작가 꽃 이야기  
98 Review & Preview  
로베르토 와르카야 사진전 - A sombre Aspect  
추상적인 인식자 - 김재훈  
104 Travel destination  
東夷 민족은 동북공정이 두렵지 않다  
문화강국 대한민국 - 최승언  
108 Photo Theory  
너무나 매혹적인 정물사진 IV 감정빼고 본질 드러내다  
\_신즉물주의(New Objectivity) - 윤은숙  
114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117 Gallery 이강석 개인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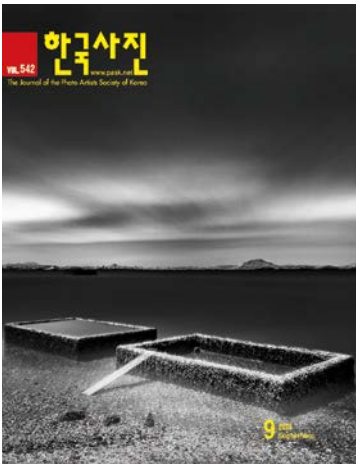
- 2025년 6월**  
03 Headnote  
사진예술의 내일을 준비하며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시묵  
36 전시광고  
[김남호 사진전] 비바람 머금고 바위 틈에서 미소짓다  
천상의 산꽃을 찾아서 - 김남호(인제)  
40 전시광고  
[연도흙 개인전] 잊히지 않을 기록, 이젠 역사 속으로  
골목길에서 찾은 시간의 선물 - 연도흙(화성)  
44 전시광고  
[조영신 사진전] 자연과 인간 담아낸 따뜻한 사선  
The Earth, 사진이 그림을 품다 - 조영신(광주)  
48 자상전 1  
자연 속 ‘침표’일까? 카메라 앵글 멈춘다  
갯가의 흔적 - 정종관(나주)  
52 Photo Essay 01  
전통과 현대건축 그 점과 선 & 색채  
조형의 미 - 이상순(구미)  
56 자상전 2  
믿음으로 안내하는 예술, 인간 내면을 밝히다  
빛과 어둠 - 김상수(용산구)  
60 Photo Essay 02  
고요한 울림 따라 끝 없는 여정  
디자인의 감성과 사진의 직관이 만나다 - 서상철(송파구)  
64 KYOTOGRAPHIE 2025  
JR 크로니클 교토 2024 (JR Chronicle Kyoto 2024)  
교토역 발당 북쪽 통로의 벽  
68 Review & Preview  
흑백 계조에 담은 ‘투명한 울림’ 관객 앞으로  
이모젠 커닝햄 사진전 - Stillness - 김재훈  
사진강좌  
74 Travel destination  
자유 평등 평화 실현할 곳 어디일까?  
民國이나 vs 王國이나 - 최승언  
78 Photo Theory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가’  
시 시대의 새로운 사진 예술 - 조주는  
협회소식  
82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업계소식  
103 Gallery  
이수연 출판기념 저자 특강 외



- 2025년 7월**  
03 Headnote 다시, 새로운 절반을 준비하며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  
08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18일 야외광장서 개막식  
34 제1회 사진가를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 석불사  
마포나루 한강변 300년 고찰서 ‘힐링’  
석불사 템플스테이 - 유병용  
38 전시광고 [박충범 개인전]  
사막과 설원에서도... 능선 품은 초록빛  
‘나무’ 그 너머의 풍경 - 박충범(충주)  
42 전시광고 [고향숙 사진전]  
햇빛과 바람이 뿜아낸 추상 소금 밭 - 고향숙(수원)  
46 전시광고 [권태영 개인전]  
한자, 감성, 미식의 어울림에 매료되어 떠난 탐미 여정!  
포르모사(Formosa), 타이완(臺灣)의 따스한 미소  
- 권태영(부산)  
50 전시광고 [신정섭 개인전]  
바람의 흔적, 빛의 발자국 따라 피어난다  
Secret Garden 비밀정원 - 신정섭(수원)  
54 Photo Theory  
감각화의 기술, 예술가의 눈과 귀에서 시작된다  
현대 사진예술, 그리고 시 시대의 변화  
- 김형준(본부 사무처장)  
58 자상전 1  
색깔 없이 더 강하다. 비울수록 또렷하다  
빛과 그림자와 물상 - 박창현(여수)  
62 Photo Essay 01  
시간과 물질의 교차점에 숨은 ‘미학’  
시간의 흔적, 벽의 시(詩) - 김용란(의왕)  
66 Photo Essay 02  
빨강 자동차 타고 라벤더 향 꽃밭으로  
꿈속의 소풍 - 최승숙(부천)  
70 자상전 2  
장미꽃과 녹슨 공구가 합작한 ‘긴장과 조화’  
기계와 생명의 교차점 - 홍두현(안양)  
74 KYOTOGRAPHIE 2025  
“색은 환상, 현실은 흑백” 무색의 사진가  
GRACIELA ITURBIDE(그라시엘라 이투르비데, 멕시코)  
78 Review & Preview  
도시와 휴먼 Cities and Humans 대전 포토페스티벌 - 김재훈  
84 Travel destination  
지금도 위대하다 국민 위한 ‘겸손 리더십’  
세종대왕과 아우구스투스 - 최승언  
88 Photo Theory  
일상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담아내다 정물 사진 A to Z - 여상현  
92 Society News / Member Plaza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100 Gallery 산정섭 개인전 외



- 2025년 8월**  
03 Headnote  
전국을 강타한 물폭탄, 모두 무탈하신지요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선종백  
32 전시광고 [사광회 70주년 회원작품전]  
빛으로 그린 숨결, 그 세월을 담다  
대구사진역사 70년  
36 전시광고 [2025 사진집단 행궁포토 창립 10주년 사진전]  
수원의 감수성으로 풀어낸 포토폴리오  
기억을 잇다, 삶을 보다  
40 전시광고 [세이브존 아트갤러리 강신민 & 류태석 초대전]  
외부세계와 공감하는 삶의 노래  
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두 번째 이야기 - 류태석(고양)  
44 전시광고 [사광(沙光) 차재철 개인전]  
전통의 향기 담아낸 20여년의 기록  
홍천향교의 문화유산전 - 차재철(홍천)  
48 전시광고 [이진영 개인전]  
꼭 기억해야 할 지난날 우리들의 삶의 기록  
잊혀져 가는 것들 - 이진영(대전)  
52 자상전 1  
한국 1세대 사진가, 최재복의 앵글  
1930~40년대를 회고하다 - 권정태(대구)  
56 Photo Essay 01  
사진으로 남은 학창시절 통학열차  
수인선 협궤열차의 추억 - 강준희(인천)  
60 자상전 2  
빛과 바람 지나간 자리엔 기억이 소록소록...  
보이지 않는 생의 흐름 - 김형선(제주)  
64 Photo Essay 02  
잉어인가 했더니... 수초 먹고 사는 외래어종  
장수 물고기 ‘초어’ - 김서운(제천)  
66 Review & Preview  
‘아름답고 충격적’ 지구 환경문제 주목한 사진전  
2025 CCPP 더 글로리아스 월드 24일 오픈 - 김재훈  
사진강좌  
72 Travel destination  
지구촌 폭염 홍수 산불... 이제 시작일 뿐  
인류 문명 어디로 가나 - 최승언  
76 Photo Theory  
중국 예술가들에 고전 프린트 기법 ‘특별강의’  
사이아노타입 주제로 워크숍 - 김정현  
협회소식  
80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업계소식  
98 Gallery  
잊혀져 가는 것들 - 이진영 개인전 외



- 2025년 9월**  
03 Headnote  
지회, 지부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만중  
28 행사광고  
제4회 제주사진예술제 The 4th Jeju Art Festival  
제주사진예술제를 여는 글  
32 전시광고 [박광린 개인전] 나는 또 한 번 나 자신과 마주했다  
낯설과 익숙함 - 박광린(춘천)  
36 전시광고 [최동규 출판기념회 및 개인전] 강도 밖에서  
일하는 광부 탄전시대 삶 ‘난장’ - 최동규(태백)  
40 전시광고 [엄춘식 개인전] 하늘을 누비며, 바람을 가르며  
날갯짓의 서사 - 엄춘식(홍천)  
44 전시광고 [최진식 사진집 출판 기념 전시회] 사진가의  
감성으로 읽어낸 천년고찰 창녕 관룡사 - 최진식(창녕)  
48 전시광고 [고기영 초대전] 우리의 삶과 같은 존재,  
항상 우리 곁에... 나무 무 - 고기영(노원구)  
52 Photo Essay 01  
바람과 모래가 만든 시간의 곡선  
타클라마칸 사막 - 배복형(충주)  
56 자상전 01  
섬 산 바다, 드론이 건넌 시간의 풍경  
제주 파노라마 - 이순우(제주)  
60 Photo Essay 02  
‘태어나 한 필, 죽어서 한 필’ 우리의 웃김  
강화 소창 이야기 - 원운호(인천)  
64 자상전 02  
이 빛깔과 향기 누구의 작품일까?  
꽃, 삶을 문다 - 한항자(대구)  
68 KYOTOGRAPHIE 2025  
현대 인도 미술 이끄는 여성 작가  
Pushpamala N (푸쉬파말라 N. 인도)  
72 Photo Theory 01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②  
AI 시대, 왜 여전히 배워야 하는가 - 김형준(본부 사무처장)  
76 Review & Preview  
서울에 온 ‘같은 장소, 다른 전시’  
조나단 베르탱 사진전 & 알렉스 키토 사진전 - 김재훈  
82 Travel destination  
‘내 차’ 대신 ‘우리 차’가 더 풍요롭다  
다가오는 공유사회 - 최승언  
86 Photo Theory 02  
‘현마음’ 10인 작가들, 한달 간의 전시  
Guerrilla Exhibition : Dreams of Heaven - 윤은숙  
90 Society News / Member Plaza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96 Gallery 고기영 외





## 2025년 10월

### 03 Headnote

결실의 계절, 가을에 부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향룡

### 32 전시광고

[이만우 개인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기획 초대전  
자작 : 침잠의 숲 - 이만우(대구)

### 36 전시광고

[조은자 개인전] 2025 공주 올해의 사진작가전  
감각하는 사선의 색과 선 - 조은자(공주)

### 40 전시광고

[아홉번째 조로옥 사진전] 생명의 향기 품은 계절의 숨결  
플라워 가든 Flower Garden - 조로옥(목포)

### 44 자상전 01

찰나를 담아, 스스로 역사가 되다  
사진가 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故 이경모

### 48 자상전 02

빛으로 남긴 한국사진예술 발자취  
사광회 창립 70주년 - 한경자(대구)

### 52 Photo Essay 01

인간과 자연 해석한 폴란드 작가  
마르친 리체크 Marcin Ryczek

### 56 자상전 03

달빛 능선 너머 오로라 춤추는 얼음 땅  
파타고니아 피츠로이 - 고광중(광주)

### 60 Photo Essay 02

시대의 숨결 담아낸 삶의 기록  
2025 경기도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 64 KYOTOGRAPHIE 2025

꾸밈없는 격물치지, 사물의 본질을 본다  
Eric Poitovin (에릭 푸이토뱅, 프랑스)  
사진강좌

### 70 Photo Theory 01

역사를 기록하고 현실을 증언하라  
AI 시대 사진이 사는 법 - 배택수

### 74 Photo Theory 02

AI 디지털아트 전문가 과정이 빛은 작품들  
사진 이후의 사진 - 조주은

### 78 Review & Preview

닉 브랜트 사진전  
The Day May Break 생존의 나날 - 김재훈

### 84 Travel destination

이젠 애니메이션 한류, 세계는 한국으로  
캐대한 열풍 - 최승언  
협회소식

### 88 Society News / Member Plaza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업계소식

### 97 Gallery

조은자 전 외



## 2025년 11월

### 03 Headnote

가을, 사진예술의 결실을 기대하며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시묵

### 06 특집 |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안내

18 특집 | 중국사진예술학회 베이징 전시후기  
2025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초청... 주제는 '사선과 사색'  
중국서 열린 한국사진 예술전

40 전시광고 [寫光 김삼경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 60년의 세월  
을 담다 變遷 변천 - 김삼경(진주)

44 전시광고 [강준희 초대전 및 출판기념회] 어린시절 놀던  
내 고향 그 모습 안산 옛 사진전 - 강준희(인천)

48 전시광고 [2025 창립 4주년 가람회 전시회] 한사전 빛낸  
사진인 10인 작품 한자리에... 가람회 고흥 전시회

52 전시광고 [古岩 김정호 첫 사진전] 침묵의 언어는 내 마음의  
빛이 되고... 나한의 품에 안기다 - 김정호(창원)

56 전시광고 [윤영녀 사진전 및 출판기념회] 고요한 내면  
깨우는 바람의 손길 산발, 순간과 영원의 경계에 서다  
- 윤영녀(광주)

60 전시광고 [윤은숙 개인전] AI와 합작한 구름 위의 생명력  
부억도-과일과 날씨(Fruit & Weather) - 윤은숙(경기 광주)

64 자상전 01 [윤보상 개인전] 하늘 장막 열린다 희망이 솟는다  
어둠과 빛의 경계 - 윤보상(대전)

### 68 Photo Essay 01

렌즈에 담은 베트남, 그 일상과 나  
희구(希求)의 풍경 - 김평산(충주)

### 72 Photo Essay 02

들리지 않아도 듣는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손짓 말'  
Aria\_아리아 - 이현아(대구)

### 76 자상전 02

불꽃 같은 삶 다시 피어나리라 꽃의 열정  
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 오문자(성남)

### 80 KYOTOGRAPHIE 2025

영혼을 흔드는 아일랜드의 빛과 소리  
Eamonn Doyle 에몬 도일 - 노성진  
사진강좌

### 84 Review & Preview

하이트 문화의 아이콘이 온다  
페트라 콜린스 : fangirl - 김재훈

### 90 Travel destination

보았노라 찍었노라 지배하노라  
카메라 권력 시대 - 최승언  
협회소식

### 94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결과 및 협회소식, 분과위원회, 회원동정  
업계소식

### 105 Gallery 윤은숙 개인전 외



## 2025년 12월

### 03 Headnote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연대와 창조의 시간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자열

### 24 전시광고

[정인호 개인전] 멈춘 시간의 미학  
빛이 남긴 기록 새로운 생명 - 정인호(여수)

### 28 전시광고

[송인호 개인전 3rd Solo Exhibition] 홀로 지킨 그 자리, 바  
람이 머문다

뿌리깊은 고독 Deeply Rooted Solitude - 송인호(대전)

### 32 전시광고

[김민주 개인전 & 구미아트페어 초대전] 바람처럼 물처럼  
시간 속으로...

미묘한 흐름 Subtle Flow - 김민주(구미)

### 36 특집 |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38 특별전 |故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42 AI 이미지 콘테스트 &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50 서울 특별전 - 서울의 풍경

54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

64 특별전 '장가계'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70 사진학과 교류전

### 74 자상전 01

브로드웨이로, 첼시마켓으로

뉴욕을 걷다 - 김승철(부산)

사진강좌

### 78 Review & Preview

그만의 빛으로 터쳐한 산과 물

민병현 사진전 산수경 - 김재훈

### 84 Photo Travel

카메라 두고 떠난 여행 I

이탈리아와 독일, 길 위의 노트 - 유병용(서울)

### 88 Photo Essay 01

한민족의 구심점 독도

그 섬장의 울림을 담다 - 이수인(익산)

### 92 Travel destination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다

예술의 역사와 미래 - 최승언

### 96 Photo Theory

말없는 사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물 앞에 멈춰 선다는 것 - 여상현

협회소식

### 100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결과 및 협회소식, 분과위원회, 회원동정

업계소식

### 114 Gallery

김민주 개인전 & 구미아트페어 초대전 외



#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정품무한잉크



4x6  
2,100장  
출력가능  
엡손자료(L8050, L18050)

Wifi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엡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b>포토프린터&amp;정품잉크</b>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b>원목액자</b>  Natural, Brown 11R=6,600원	<b>사진용지</b>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b>축제·행사 장비대여</b>  1분 출력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	--	---	--

# 사진여행의 시작

포토투어가 작가 여러분의 특별한 사진여행을 안내합니다.  
감동과 추억이 간직되는 여행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 1월 - 중국 황산 촬영, 일본 비에이 촬영  
- 일본 장노출 촬영(이세만)
- 2월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로라 촬영  
- 일본 비에이 유빙 & 단정학 촬영
- 3월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일본 복사꽃 & 장노출 촬영
- 4월 - 스코틀랜드 & 네덜란드 촬영  
- 체코 남모라비 봄 촬영
- 5월 - 호주 남부 장노출 촬영, 인도네시아 장노출 촬영(통복외)
- 6월 - 이탈리아 돌로미티, 베트남 무강차이 다락논 촬영
- 7월 - 아이슬란드 백야 촬영 여행  
- 필리핀 블루라군 촬영
- 8월 - 뉴질랜드 장노출, 스코틀랜드 여름 촬영
- 9월 - 아이슬란드 가을, 일본 가을 단풍 촬영 여행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촬영(1차)
- 10월 - 베트남 무강차이 가을 촬영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2차), 슬로베니아 가을 촬영 여행
- 11월 - 일본 비에이 촬영, 인도네시아 숨바섬 촬영
- 12월 - 베트남 장노출, 일본 비에이 촬영



PHOTOTOUR

